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제7차 교육과정 역사과 심화선택의 문제

-<한국근·현대사>과목 중심으로-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마 일 영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제7차 교육과정 역사과 심화선택의 문제

-<한국근·현대사>과목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화 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마 일 영

마일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신 명 호 (인)

위 원 문학박사 박 화 진 (인)

위 원 역사학박사 강 인 욱 (인)

목 차

<i>Abstract</i>	v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II. 제7차 교육과정과 역사과 심화선택	5
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5
2. 역사과 심화선택과 <한국근·현대사>	7
1) 역사학계의 동향-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교육	9
2)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	11
3) 초·중·고 근현대사 교육 현황	15
III.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실태	24
1. 조사방법과 조사 내용	2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8
1) 교사 설문의 분석	28
2) 학생 설문의 분석	53
IV. 결론 및 제언	79

참고문헌	84
부록 설문지(교사용-학생용)	88



표 목차

< 표 1>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	6
<표 2> 6학년 1학기 <사회> 목차	16
<표 3>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 학습내용	18
<표 4> 6차 <국사 하>와 7차<국사> 근현대사 부분의 비교	19
<표 5> 2005년도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	20
<표 6> 고등학교 10학년 국사 교육과정(2005학년도 이전)과 2006년 개정된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	21
<표 7> 고등학교 국사교육과정 근현대사 단원과 서술 비중	22
<표 8> 교사용 설문지 내용과 문항	26
<표 9> 학생용 설문지 내용과 문항	27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11> <한국근·현대사>의 선택 여부	29
<표 12> <한국근·현대사>과목의 심화 선택 형식	30
<표 13> <한국근·현대사>의 연간 단위 수	30
<표 14> <한국근·현대사> 선택 시 수업 해당학년	31
<표 15> 국사 수업시수 보강 현황	31
<표 16> 심화 선택과목 선정 시 고려사항	32
<표 17>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독립과 선택과목에 대한 생각	33
<표 18>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의 필요성	34
<표 19> 중학교 <사회>에 속했던 역사과 독립	35
<표 20> 대학의 <국사> 가산점 부여의 영향	35
<표 21> <국사> 가산점 부여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의 위상 변화	36

<표 22> 10학년 <국사>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37
<표 23> <한국근·현대사> 부분의 교육과 연수	38
<표 24> <한국근·현대사> 수업의 애로점	38
<표 25> <한국근·현대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재연구	40
<표 26> <한국근·현대사>의 효율적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	41
<표 27>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경향	42
<표 28>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 공유와 공동 연구 주장	43
<표 29> <한국근·현대사> 수능의 선택비율	44
<표 30>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미선택·포기하는 이유	44
<표 31> <한국근·현대사> 수능 미 선택 시 학생들의 수업태도	45
<표 32> 학생들의 역사의식 정립 시기	46
<표 33> 학생들의 <한국근·현대사> 지식 습득 방법	47
<표 34>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영향	48
<표 3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3
<표 36>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여부	54
<표 37>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찬성 이유	54
<표 38> <한국근·현대사>의 독립에 대한 생각	55
<표 39> <한국근·현대사> 미선택 시 역사인식에 불균형을 초래 문제 ..	57
<표 40>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58
<표 41> 사회탐험영역 11개 과목 중 자신이 택한 4개 과목	59
<표 42> 2004-2006년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60
<표 43> 인문계열에서 <한국근·현대사> 선택 이유	61
<표 44> <한국근·현대사>의 수능 미선택·포기 이유	62
<표 45> 국사·근현대사 과목 응시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63
<표 46> 부산대학교에서 <국사> 선택 시 가산점 부여의 영향	64

<표 47> 중학교 시기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65
<표 48> 10학년 <국사> 수업시간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66
<표 49> 근현대사와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67
<표 50> <한국근·현대사> 의 바람직한 수업 형태	68
<표 51> <한국근·현대사> 의 역사관·민족관 성립 영향 역할	69
<표 52> <한국근·현대사> 부분에서 관심분야	70
<표 53> 역사관 정립의 영향 요인	71
<표 54>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 인식 여부	72
<표 55> 중국 동북아 공정사업으로 인한 역사 왜곡 내용 인식여부	73
<표 56>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에 대한 관심분야	74
<표 57>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제도가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	75
<표 58> 10학년 <국사> 수업시간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76
<표 59> 개설유무별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문제 인식도 차이	76

Problems about the Advanced Historical Elective Subject i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by Ma Il-young

*Major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has been administered since the 2002 academic year with a view to cultivating autonomous and creative Koreans to lead the society of autonomy and creativity in the 21st century of information-led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subject of history has been continually controversial as lots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by both school teachers and historical organizations.

While "Korean History" was decreased in the number of

class hours,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was independently made as an advanced elective subject. The subject was welcomed as diverse data presentation and description were possible in the textbook-authorization system to help students have wide historical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parts of modern-contemporary history tended to be neglected in the class of "Korean History," or the elective subject itself was often unavailable owing to each school's special situ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icular systems of the two subjects, social studies and history, while considering how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is selected and managed at school and whether it is independently needed or not.

First, the standpoint of postmodernism is used here to estimate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some countries. Next, how the parts of modern-contemporary history have been treated in the textbook of "Korean History"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is revealed. Last, a questionnaire for students and teachers is analyzed about the matter of separating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rom "Korean History," the issue of intensifying history education, and the necessity of educating modern-contemporary history.

As for curricular management,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should be included in "Korean History" and the latter needs to have proper period allotment for faithful instruction. In addition, for advance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eachers have to have training, diverse materials development, and group research activities. Especially, instead of textbook-centered instruction, the development of multimedia-used instruction is increasingly required by way of on-the-spot experiences and moving-image materials.

The issue of strengthening history education was frequent but temporary whenever China mentioned the Northeastern-Area Research Project and Japan distorted some contents in its history textbook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listen to the improvement demands regarding the problems in the history education at school so that there will be less trials and errors in the 8th Educational Curriculum to let people have desirable history education fitting the 21st century.

I. 서론

1. 연구 목적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길러내는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역사교육 과정 운영을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2002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바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며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¹⁾

그리고 최근에는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역사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시행초기부터 교육현장의 현직교사 뿐만 아니라 역사단체로부터 끊임없이 논의 된 바 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역사과에서는 <국사>로부터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처음 생기면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당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상으로 6-8단위를 기준하고 있어서, 4단위인 국사에 비해 수업시수가 2배에 달하며 다루는 내용도 이전의 국사에 비하면 상당히 자세해지고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이 대폭 들어가 있다.²⁾

1) 교육부, <교육과정자료 29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2001.

2) 김한중,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현대사 수업>, 《한국 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p295

기존 국사 교과서의 초·중·고 현대사 부분은 양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빈약하고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내용들이 정권 홍보의 장이 되곤 했다. 이번 심화 선택화 되어 신설된 <한국 근현대사>는 김정 체계로 전환하여 그동안의 획일적인 교과서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제시와 서술로 학생들이 폭 넓은 역사인식을 얻을 수 있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독립됨으로써 국사에서 근현대사 내용의 수업에 소홀해지거나 학교의 특성과 수업시수 안배에 따른 일선 학교 사정 때문에 선택에서 배제된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리고 일선 교사들은 학교시절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근현대사 부분을 독립교과가 되어 늘어나 많은 시간에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되어지는 어떤 교과서를 어떤 기준을 선택하여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하는 고민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들어난 기사로 조선일보(2007년1월 16일자 문화 A23면)에 “뒷부분 한국사 몰라도 되나”라는 표제의 글이 실렸다.

한국인들은 한국 역사에서 고대와 17-18세기 근세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정작 현재와 가까운 근·현대의 역사에는 무척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2006년 11월 25일 처음 시행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문항별 수험생 반응률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17~1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에선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세기 후반 개항기와 광복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에선 5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근·현대사를 소홀히 다루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한국근·현대사>가 어느 정도 선택되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과연 <한국근·현대사>가 심화 선택과목으로 독립이 될 필요성이 있

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상의 <한국근·현대사>의 운영 현황 및 실제학교 현장에서의 <한국근·현대사> 교수- 학습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밝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으로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근현대사 부분의 교수 학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교육과정 적용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중에서 사회과 교육과정과 역사과 교육과정의 편제를 알아보고 <한국 근현대사>부분이 독립과목으로 심화 선택화된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역사학계의 또 다른 동향인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근현대사 교육 방향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핀 다음, 각국의 근현대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방이후 초·중·고 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이 국사 교과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져 왔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사 교과에서 심화 선택화한 <한국근·현대사> 분리 문제, 역사 교육 강화 문제와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교사 및 학생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부산지역 144개 고등학교 교사 3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한 달간에 걸쳐 회수를 한 다음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일반계의 인문계와 자연계, 실업계 남녀 학생을 표집 하여 4개 학교에 임의의 8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5차 교육개정안이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제8차 교육과정의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과 교육 현장에서 안고 있는 특수성 및 문제점을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국근·현대사>의 위치와 교수 학습 개선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Ⅱ. 제 7차 교육과정과 역사과 심화 선택

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은 크게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선택 중심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활동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선택 중심교육 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4단위로 선택과목 136단위, 특별활동 8단위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 단위 중에서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뉜다. 일반선택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선택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이 중 심화선택과목은 고교 전체 이수 단위 216단위 중 112 단위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에 관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과목간의 균형적인 이수가 필요한 경우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은 먼저 교육청이 선택과목 중 일정한 숫자를 지정·선택하면, 그 나머지 과목 중에서 학교가 지정 선택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 선택에서도 제외된 과목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시·도교육청지정 선택과

목, 학교 지정선택과목, 학생 선택과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지정은 어느 정도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가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된 교육 과정의 운영임을 염두에 두어 학교는 학생 개인별 과목 선택을 적어도 28 단위이상 보장 하되 연차적으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향과 초점을 주고 선택 결과가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체계적이고 계열성 있게 집중적으로 개설 이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³⁾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는 <표 1>과 같다.

<표 1>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구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 중심교육과정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사회	사회 10단위 (국사4)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 숫자는 각 단위수를 의미함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 해당하는 사회부분은 국민공통기본 교과로 국사 4단위를 포함하여 10단위로 편제되는 바 사회과목 속에는 일반사회 단원과 한국지리 단원 그리고 환경관련 단원으로 구성되어 통합사회적인 교수학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원별로 전공교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당 3시간을 사회교사와 지리교사가 각각 1.5시수라는 애매한 단위로 수업을 하고 있다.

³⁾ 교육인적자원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고등학교> (2002). 경기도교육청 연수자료, pp 6-10.

일반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심화선택과목을 연결하는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1개의 과목을 개설 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의 경우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화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선택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 영역별로 2~4과목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에는 심화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과목이 선정되었으며,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이,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심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이렇듯 선택과목의 개설은 동일한 교실 속에서도 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역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심각하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역사과 심화선택과 <한국근·현대사>

역사영역의 가장 특이할 만한 변화는 기존의 국사과목이 고대에서 현대까지를 포괄하는 통사체제였던 데 반해 이제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근·현대사>를 신설·분리시켜 심화 학습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준거안으로 <한국근·현대사> 관한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성격, 교과 목표, 교과 내용체계, 영역별 내용, 평가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근·현대사>과목의 설정 이유는 “우리 민족의 가까운 과거를 정확히 앎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바

⁴⁾ 교육부1997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사회>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10-11
재인용 이해영,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육의 현황>,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p208.

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된 과목이다”라 하였으며, 학습 목적은 “우리 민족이 근현대에서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근·현대사>과목은 10학년의 <국사>과목과 연결되어, 이미 학습한 역사적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오늘에 근접한 근현대사를 시대사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심화시켜 슬기롭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현대사>교재도 다양한 탐구 자료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지적인 탐구심과 상상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⁵⁾

제 7차 교육과정에서 10학년 공통 필수인 <국사>과목에서 근현대사부분의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고 2, 3학년에서도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근현대사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근현대사를 전혀 배울 수 없거나 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그 위상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국사>는 독립교과에서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위축되었고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으며(6단위에서 4단위로), 세계사 또한 선택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약화되었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의 영역이 독립과목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교육과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많은 실업계열의 학교와 수능의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은 거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근·현대사>의 교육목표인 우리 민족의 가까

5)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교육부에서 고시한교육법 제 155 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목표 1997.12.30 인터넷 자료

운 과거를 정확히 압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근현대에서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온 역량을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당면 문제-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동북아 문제, 일본과의 역사전쟁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 역사학계의 동향 -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교육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동북아 역사분쟁을 넘어 역사전쟁이라 불리면서 역사교육 현실에 비판과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언론이나 일부 역사학자는 역사교과서 분쟁 속에서 7차 역사과 교육과정 편성은 역사교육을 약화시키며 시대 조류에 역행한다고 공격하면서 역사교육 강화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교육 강화라는 문제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최근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움직임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인식이다. 포스터 모더니즘 역사학은 민족이나 국가는 실체가 없는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할 뿐이며 서양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방의 담론보다는 억압의 담론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민족(국가) 중심의 역사서술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⁶⁾ 물론 이러한 포스터 모더니즘 역사학의 도전에 대한 기존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민족과 국가를 절대시하는 거대한 담론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은 국가와 민족의 억압적인 측면만 주목하고 그것이 지니는 해방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같은 더 강고한 지배이데올로기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⁷⁾

6) 임지현, <한국사 학계의 '민족' 이해에 비판적 검토>, 《역사 비평》 26, 1994

지수걸은 국사교과서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국가와 민족의 신성성, 초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낸 근현대의 민족대서사는 결국 부재한 또는 결핍된 근대를 완성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고난에 찬 장정의 역사이며 이를 방해하는 민족 내외의 모든 적은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절멸시켜야 할 철천지원수로 볼 뿐이라는 것이다.⁸⁾

그것은 <한국근·현대사> 준거안에 영역별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무수히 많은 역사 사실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코드는 기존의 국사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우리 민족’과 ‘근대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근·현대사> 준거안은 민족사의 이해 방법으로 ‘주체적’·‘구조적’·‘객관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민족의 역사를 초역사화하고 있다. ‘현실의 민족’을 초역사화하기 위해 역사 발전 혹은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항상 ‘우리 민족’을 부각시키고 있다.⁹⁾ 는 주장이다.

이렇듯 <한국근·현대사>가 민족의 과잉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족(국가)과 근대의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해서 민족과 근대를 해체하자는 입장이나 민족과 근대를 중심으로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7) 유용태, <거시역사와 미시분업: 분업과 협업> 《역사 비평》 58, 2002, 재인용, 고영진, <포스터 모던시대의 근대 전환기 인식과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 《한국사 교과서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p187.

8) 지수걸, <집중토론: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역사학·역사교육의 쟁점, 2002, p132

9) 한재웅,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문제점> 경희대학교 교육학석사. 2006, p27 재인용
지수걸,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준거안의 문제점 -근대(‘개항’~‘해방’)관련부분 중심으로-, 『역사 교육』 79, 2001, p 181

나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기존 역사학과 포스터 모더니즘 역사학의 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학계의 변화가 근현대사 준거안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반영되고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⁰⁾

이렇듯 학계의 동향이 <한국근·현대사>에 포함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당위에서 폐지까지 다양한 담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의 과도한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수용하지만 ‘국사’ 해체 이후 메워줄 대안이 분명치 않다면 정치사 중심을 비판하고 민중사, 소외된 약자의 역사를 말하면서 탈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주의 역사 교육에 대한 비판은 우리 현장 교사들을 혼란스럽고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지도 방향에 갈피를 잡기 힘들게 하며 현 교실 수업과는 다른 역사담론이 어렵기만 하고 그대로 국사 민족사 체제의 역사 교육방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수준에서 다른 교과가 아닌 국어와 자국사 교육은 세계화 속에서도 최소한 국가가 지향하고자하는 구심점과 민족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지나치게 국수주의여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한 틀을 갖고 역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각국의 역사 교육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역사 과목을 정규교과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또 역사 교과의 기술내용도 자국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역사교육을 필수 또는 통합과정으로 선정, 중시하고 있으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역사 교육

¹⁰⁾ 고영진, 위 논문, p188.

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 나라의 역사 교육과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교육개혁 요구와 진보주의 교육관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사회과목이 미국 역사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됐으며 독립교과로 최소 4년간 필수로 배울 정도로 비중이 높다. 1994년 확정된 “목표 2000-미국 교육법(Goals 2000-Educate America Act)”은 21세기를 맞이하는 미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미국사는 5, 8, 11학년의 3개 학년에 걸쳐, 세계사는 7학년과 10학년에 배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학년에 각 지방주의 역사를 배운다.¹¹⁾

미국의 교과서들도 기본적으로 연대순에 따라 통사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전체시기를 4단원까지로 정치사 중심으로 개괄하여 흐름을 익힌 다음 다시 시대별로 자세히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사 내용은 1700년대부터 시작되므로 200년 역사가 근현대사 중심이 된다.

그러나 미국도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교마다 개설하는 과목이 다른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만으로도 학교교육 내에서 역사 교육의 비중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더구나 개설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그 위상은 크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 따라서는 역사 교육의 현황을 보는 관점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중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도 매우 기본적인 역사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며, 선택과목인 경우 사회과 안에서 역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근거를 들면서 역사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¹²⁾

11) 김한중, <미국, 영국, 일본의 역사 교육과정 동향>, 《역사교육》 71, p.191.

영국은 국가교육과정의 학습프로그램은 영국사와 세계사가 혼합되어 있다. 그것은 유럽의 경우 작은 민족이동과 민족, 국가 간의 혼합과 분열 등으로 자국사와 외국사, 특히 유럽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학교 정도까지(주요2, 3단계)는 영국사가 중심이 되고 외국사가 합쳐진 역사를 분절적으로 시대 순으로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고교1, 2학년(주요 4단계)에서는 20세기 현대사를 주제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1995년 개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과목이나 시간을 감축한다는 방향에 따라 현대사 단계의 학습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¹³⁾

프랑스는 역사 지리를 통합교과로 배운다. 통합교과이지만 중학교 1~4학년과 고교 1학년에서 역사, 지리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데 고교 2, 3학년 때 인문·사회·자연계열로 나뉘는 뒤에도 모든 계열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운다. 프랑스 고등학교 역사교육 내용이 거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 교육이 현대 프랑스가 안고 있는 반유대주의, 반이슬람주의와 같은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 또한 계층 간의 갈등과 같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역사를 중등학교 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하는 프랑스 역사교육과정에서 현대사는 다른 시대의 역사보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일본의 경우는 중학교 1,2 학년 과정에서 일본사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친다. 일본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면서 관련된 시기의 세계사적 배경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일본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에서 “세계사

¹²⁾ Diane Ravitch, "The Plight of History", In Paul Gagnon and The Bradley Commission on History in School(eds.), op, cit 재인용, 김한중, 위 p 193

¹³⁾ 김한중, 위 p 204.

¹⁴⁾ 주철민, <프랑스 고등학교 현대사교육의 내용구성과 조직>,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p 230.

는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일본의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실만을 다루는 데 그칠 것”이라고 명시할 정도다. 1989년 고교과정에서 세계사를 필수로 정했지만 일본사의 비중은 여전히 강조된다. 일본은 1999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을 재개정, 고교 사회과를 공민과 역사·지리로 나눠 세계사 A·B 중 1과목을, 일본사 A·B, 지리 A·B 중 1과목을 선택 필수로 정했다.¹⁵⁾

즉 고교에서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했으나 일본사 선택률이 높아 일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또한 일본사 A와 세계사 A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사 B도 일본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종전에 비해 근현대사 부분이 현저하게 확충되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사를 중점 과목으로 강조해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역사가 7개 필수과목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고교에서 중국 근현대사를 필수, 중국 전근대사화 세계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1996년 고교에서 중국 근현대사만 필수 과목으로 남기고 세계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꾸면서 중국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전국 통일 대입에서도 중국사는 중국어, 외국어, 수학과 함께 필수과목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1,2학년 때 중국사 교과서 4권을 배우는데 이어 고교에서 중국 근현대사를 필수로 배우는 등 중국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 학습량도 방대하다. 세계사는 15세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교육되는데 세계사 내에 중국사의 비중을 1/3이상 포함하고 있다. 즉 오늘날 세계와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역사 전반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는 다른 나라의 세계사 교과서에 비해서 자국의 역

15) 정재정, <일본 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실》 8, 1992, p.160.

주)일본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대 방침이 생도의 개성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 단위수를 줄이고 선택과목의 단위수를 늘인 것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사부분의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것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볼 때 각국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필수와 선택과목의 차이점은 보이나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자민족 중심 역사 인식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역사교육을 세계화 시대에 핵심적인 교과로 인식하여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역사와 함께 외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3) 초·중·고 근현대사 교육현황

현행 제7차 역사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이후 고등학교까지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 근현대사 영역의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초등 사회과 6학년 1학기(국사 영역) ¹⁶⁾ 교육과정은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다.

¹⁶⁾ 교육인적자원부 사회 6-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초판발행

<표 2> 6학년 1학기 <사회> 목차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1)처음으로 세운 나라 조선
	1) 하나로 뭉친 겨레	(2)힘을 겨루어 성장한 세 나라
1.우리민족		(3)삼국을 통일한 신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국가의 성	2)민족을 다시 통일한 고	(1)고려의 건국으로 달라진 정치
립	려	(2)역경을 이겨내며 꽃피운 고려문화
	3)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	(1)정치개혁으로 세운 새로운 나라
		(2)문화의 발달과 백성들의 생활모습
		(3)두 차례의 전란 극복
		(1)사회변화를 위한 서민들의 노력
2.근대사회	1)새로운 사회로의 움직임	(2)잘 사는 백성, 부강한 나라로
로 가는 길		(3)복을 빌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고
	2)외세의 침략과 우리 민족의 대응	(1)척화비를 세운 까닭
		(2)조선, 어디로 가야 하는가?
		(3)대한제국을 선포한 뜻은
3.대한민국	1)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1)총과 펜을 들어 싸운 조상들
의 발전		(2)대한 독립만세, 한국광복군 만세
		(1)분단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2)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2)민주시민이 승리하던 날들
		(3)한강의 기적에서 통일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17)

초등학교 근현대사 교육은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연대기적 서술을 하고 있으나 교과서 내용과 자료도 훨씬 많아져 교수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학생들 또한 상당한 역사적 지식을 필요로 함이 전체적 흐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초등학교 역사 학습내용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분량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

17) 양정현, <교과서 구성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규정성>, 《역사교육연구 제2호》, 2005, p10

을 <표 2>에서 지적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사>에서 근현대부분의 분량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초등 교사들은 근현대사 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한된 시수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들을 다뤄야만 하는 부담을 꼽았다.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을 지도하는데 선별적인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지만 역사적 비판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시기의 많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이다.¹⁸⁾

초등학교 시기는 역사학습이 처음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활동들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⁹⁾ 그렇지만 현재 초등학교 근현대사 교육은 대체로 부족한 수업시수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나열하여 지도하는 ‘맞보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학습을 할 기회가 있다고 미루는 생각과 현 시점에서의 비판의식 함양은 초등학생에게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현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교수 학습내용을 본다면 <표3>과 같다.

18) 김주택, <초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실태와 그 요인>,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2005, p89.

19) 김주택 위 논문 p84 재인용 Henry Pluckrose(1991), Children Learning History, Oxford : Basil Blackwell Ltd, P6

<표 3>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 년	대단원	중단원
2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선사시대의 생활 2.국가의 성립
2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1.삼국의 형성 2.삼국의 발전 3.신라의 삼국통일
2	III 통일신라와 발해	1.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2.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형성
2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1.고려의 발전 2.무신정권의 성립 3.몽고와의 전쟁
3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1.조선의 성립 2.사림세력의 성장 3.왜란, 호란의 극복
3	VI 조선 사회의 변동	1. 붕당정치와 탕평책 2.세도 정치와 농민의 저항
3	VII 개화와 자주운동	1.홍선대원군의 정치 2.개항과 개화운동 3.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3	VIII 주권수호 운동의 전개	1.독립협회와 대한제국 2.일제침략과 의병전쟁 3.애국계몽운동
3	IX 민족의 독립운동	1.민족의 수난 2.3.1운동 3. 독립운동의 전개 4.국내의 민족운동
3	X 대한 민국의 발전	1.대한민국정부의 수립 2.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개발 3.민주화 운동과 통일 노력

* 중학교 <국사>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2005년도

중학교 역사교육의 문제는 사회과에 국사가 포함되어 역사 전공 교사가 아니더라도 사회과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올바른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곧 바로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에게서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수년간에 걸친 역사학계 등의 노력으로 2010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사회과에 포함되었던 국사는 독립과목 <역사>로서 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배우게 된다.

고등학교의 역사교육과정 근현대사 단원에서 제6차 교육과정 <국사 하> 부분과 제7차 교육과정<국사> 부분의 내용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6차 <국사 하>와 7차<국사> 근현대사 부분의 비교

6차(국사 하)	7차(10학년) 국사
II. 근대사회의 전개 1.근대사회의 진전 2.근대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 3.근대 경제와 사회 4.근대 문화의 발달	VII. 근현대사의 흐름 1.근현대의 흐름 2.근현대의 경제변화 3.근현대의 사회변동 4.근현대의 문화 흐름
III. 민족의 독립운동 1.민족운동의 동향 2.민족의 시련 3.독립운동의 전개 4.사회·경제적 민족운동 5.민족 문화 수호 운동	
IV. 현대사회의 발전 1.현대사회의 성립 2.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3.경제성장과 사회변화 4.현대 문화의 동향	

*<국사 하>교과서 pp 3-229 , 교육인적자원부 2004²⁰⁾

*<국사> 교과서 pp 333-388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6차 <국사>하의 근현대사 해당하는 부분 ‘II·III·IV’이 제7차 교육과정 <국사>에서는 대단원 ‘VII 근현대사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내용면은 3개 대단원에 서술되었던 것을 한 개의 대단원

²⁰⁾ 6차 국사의 경우는 상·하 2권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 <상> 3학년에 <하>를 수업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다.

에 서술하다보니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는 11-12학년의 심화 선택과목의 선수학습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²¹⁾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에서 전근대사까지는 새로운 서술 방향인 분야별 교육과정이 분류사 체계로 나가다가 근현대사 부분부터는 별도로 독립된 대단원으로 편성·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체계의 일관성도 이루지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학계와 현장교사의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은 후, 소홀해진 근·현대사 부분의 수업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5년도 근현대 교수·학습을 위한 별책을 만들어 배부 <표 5>하였으나, 주당 2시간으로 배정된 시간상 진도관계와 <한국근·현대사>가 선택과목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표 5> 2005년도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²²⁾

분류	대단원	소단원
제1부 (pp3-46)	제Ⅰ부 한국근현대사의 이해	1. 개화기 근대 개혁에 대한 논쟁 2. 일제 식민 통치의 특징 3.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 과정 4. 한국근현대사에 나타난 생활 문화의 변화 5. 한국 근현대사 사료의 이해와 활용
제2부 (pp47-140)	제Ⅱ부 수업차시별 내용 구조와 학습 자료	1,2차시 (근현대의 정치변동①②) 3차시(근 현대의 경제변동) 4차시(근현대의 사회변동) 5,6차시(근현대의 문화의 흐름①②)
제3부 (pp141-170)	제Ⅲ부 부록	1.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의 배경과 현상 2.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3. 근·현대사 연표

21) 이지연, <역사와 심화 선택과목<한국근·현대사>의 체제와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2003

22)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인한 국민적 여론과 역사학계의 비판 등이 일자 급히 만들어 수업자료로 사용하도록 2005년 10월 배부한 근현대사 관련 자료이다.

이러한 지침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자 2006년도 개편된 국사 교과서는 각 분야사별 말미에 근현대사 부분이 진술되어 근현대사 부분 충분히 학습되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는 있으나 역시 진도와 시수 문제는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의 <표 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6> 고등학교 10학년 국사 교육과정(2005학년도 이전)과 2006년 개정된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

2005년 국사 교과서		2006년 개정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I 한국사의 바른 이해	1. 역사 학습의 목적 2. 한국사와 세계사	
II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3. 선사시대의 전개 4. 국가의 형성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1. 고대의 정치 2. 중세의 정치 3. 근세의 정치 3. 정치적 변화	5. 근·현대의 정치
IV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1.고대의 경제 2.중세의 경제 3.근세의 경제 4.근대 태동기의 경제	5. 근·현대의 경제
V 사회구조와 사회생활	1.고대의 사회 2.중세의 사회 3. 근세의 사회 4. 근대 태동기의 사회	5. 근·현대의 사회
VI 민족문화의 발달	1.고대의 문화 2.중세의 문화 3.근세의 문화 4. 근대 태동기의 문화	5. 근·현대의 문화
VII 근현대사의 흐름	1.근현대의 정치변동 2.근현대의 경제변화 3.근현대의 사회변동 4.근현대의 문화의 흐름	이단원은 없음

*<국사>교과서 2005 발행 교육인적자원부

*<국사>교과서 2006 발행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는 교육과정 수용과 관련하여서 교과서 발행제도 라는 변수 외에 또 다른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실이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 왜곡과 맞물리면서 확대 조정되는 방향으로 굴절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³⁾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제 3차부터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갔으며 교과서의 서술 분량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된 제 7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사의 단원구성과 교과서가 검정제로 비교가 어려운 제1차 교육과정과 제2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의 서술 분량을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고등학교 국사교육과정 근현대사 단원과 서술 비중 24)

교육 과정	연도	대단원의 숫자		근현대사 단원명	전체 분량 (쪽수)	근현대사	
		전체	근현 대사			분량 (쪽수)	비중(%)
제3차	1974	5	2	라. 근대사회 마. 현대사회	232	66	28.4
제3차 개정	1979	5	2	"	302	82	27.2
제4차	1982	6	2	5.근대사회의 전개 6.현대사회의 전개	356	120	33.7
제5차	1990	8	3	6.근대사회의 발전 7.민족의 독립운동 8.현대 사회의 전개	398	134	33.7
제6차	1996	9	3	7.근대사회의 전개 8.민족의 독립운동 9.현대사회의 발전	454	166	36.6
제7차	2002	7	1				

23) 양정현, <교과서 구성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제도의 규정성>, 《역사 교육연구》 제2호, p17.

24) 김한중,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제 문제>,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2003, p19.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세 번 반복의 교육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인물사와 사건사,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분류사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내용의 특성상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해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²⁵⁾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 번의 수업을 받고도 특히나 뒷부분에 위치한 근현대사 부분은 소홀해지면서 학생들은 항상 생소한 영역으로 인식을 한다.



²⁵⁾한국교육평가원, < 제 6장 중등학교 역사 교육의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연구》, 2005, p223.

Ⅲ. <한국 근현대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실태

1. 조사 방법과 내용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에 대한 부산 지역 소재 학교들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교사인 경우 부산시내 소재 일반계 및 실업계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포함한 144개교 중에서 128개 고등학교 역사 교사 27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교사 수만큼 우편으로 발송하여 188매를 회수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10매를 제외한 통계를 처리하였다. 회수율은 73%로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바쁜 업무 중에도 우편으로 다시 보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많은 응답을 해준 것은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으며 대부분 교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하여 좋은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학생의 경우는 부산시내 고등학교 일반계 남·여 2학년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고, 실업계 남·여 2학년을 선정하여 800명을 대상으로²⁶⁾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미 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7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SPSS Window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²⁶⁾ 이번 설문을 위해 남자 일반계 개금고, 여자일반계 문현여고, 여자실업계로 부산진여상 남자실업계로는 경남공업고등학교에 도움을 청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χ^2 검증하였다. 학생에게 제시된 문제에서 성별, 개설유무별 정답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분석하였고, 학교계열별 정답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법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Duncan법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교사와 학생 각각 2006. 12. 01~12. 20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본 설문지에서 역사과 <한국근·현대사>심화 선택과목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여러 문제와 내용을 살펴본 다음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교사용 및 학생용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총 21문항이며, 학생용은 22문항과 근현대사의 지식과 이해도를 살필 수 있는 간단한 문제 10문항²⁷⁾을 추가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설문지 내용과 문항은 <표 8>, <표 9>와 같다.

27) 학생에게는 설문지 문항과 별도로 근현대사의 내용 인식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추가로 조사하여 계열별, 수업개설 유무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표 8> 교사용 설문지 내용과 문항

	영역	문항번호	설문내용	비고
(1)	기초조사	1	근무학교	<표 10>
		2	교직경력	
		3	성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1-3	선택과목개설 관련	<표 11>-<표14>
		3	수업시수 보강 현황	<표 15>
		4	선택과목의 기준	<표 16>
		5,9	선택과목화의 문제점	<표 17><표 18>
		10	중학교역사과 독립	<표 19>
		11-2	대학 반영과의 관계	<표 20><표 21>
(3)	교수-학습 에 관한 내용	2	근현대사 단위 학습여부	<표 22>
		6	교사 연수의 정도	<표 23>
		16	수업지도의 어려운점	<표 24>
		17,18	교재 연구,방법	<표 25><표 26>
		12,13	교사의 역사학 인식	<표 27><표 28>
		7	선택의 필요성	<표 29>
		19	수능 선택비율	
		20	학생의 미선택이유	
		21	수업의 참여도	
(4)	역사 일반에 관한 내용	8,15	역사의식 형성	<표 32><표 33>
		14	한국사능력검정필요성	<표 34>

<표 9> 학생용 설문지 내용과 문항

	영역	문항번호	설문내용	비고
(1)	기초조사	1	성별	<표 35>
		2	학교계열	
		3	<한국근·현대사>개설여부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8,9	국사 교육 강화 정책	<표 36><표 37>
		10,11	근현대사과목 독립	<표 38><표 39>
		15	근현대사교육의 필요성	<표 40>
		17-2	사회탐구영역 과목 선호도	<표 41>-<표 44>
		18,22	역사에 가산점 부여	<표 45><표 46>
(3)	교수-학습 에 관한 내용	5,6	근현대사부분의 수업여부	<표 47><표 48>
		7	국사, 근현대사 흥미도	<표 49>
		16	바람직한 수업형태	<표 50>
		19	역사관 형성 영향	<표 51>
		20	근현대사 관심분야	<표 52>
(3)	역사 일반에 관한 내용	4,19	역사관 정립	<표 53>
		12,13,14	역사왜곡 인지	<표 54>-<표 56>
		21	한국사능력검정필요성	<표 57>
(4)	문제지 분석	1	명성황후 관련 내용	<표 58><표 59>
		2	갑신정변의 이해	
		3	동학재봉기 배경 이해	
		4	일본의 국권 침탈 이해	
		5	중국 동북 공정사업 이해	
		6	일본 식민지배 평가	
		7	무장독립투쟁 관련 지식	
		8	현대 정부수립과정 이해	
		9	4.19혁명의 시기	
		10	친일파 문제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교사 설문 의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88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첫째는 변인을 주기위한 기초조사로 3개 문항을 만들었으며, 둘째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문제를 알아보고자 교육과정운영관련 문항을 만들었으며 셋째는 교사가 교재연구와 수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역사교육을 포함한 역사전반에 걸친 인식을 알아보고자 역사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기초조사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명	빈도(%)
학교계열별	일반계	161	85.6
	실업계	27	14.4
교직경력별	10년 이하	36	19.1
	10-20년	70	37.2
	20년 이상	82	43.6
성별	남자	116	61.7
	여자	72	38.3
전체		188	100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일반계 교사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대체로 실업계에서는 국민공통교과인 <국사>만 최소 수업으로 실시되므로 1개교에 역사교사가 1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직경력 별로는 10년 이하의 경력의 교사수가 19.1 %로 중견 역사교사 수가 많았고 또한 남교사가 의외로 많은 것은 경력 대 분포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의식과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1> <한국근·현대사>의 선택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χ^2
학교계 열 별	일반계	153(81.8)	7(3.2)	160(85.6)	97.768***
	실업계	6(3.2)	21(11.2)	27(14.4)	
계		159(85.0)	28(15.0)	187(100.0)	

***: $p < .001$

<한국근·현대사>의 선택 여부에 대해 <표11>에서 계열별로 살펴보면 “그렇다”가 일반계 교사가 153명(81.8%), 실업계 교사가 6명(3.2%)으로 159명(85.0%)이 근무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일반계 7명(3.2%) 실업계 21명(11.2%)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행히 부산지역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한국근·현대사>과목이 채택되었으나 실업계의 경우는 대부분 개설되어있지 않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실업계가 1/3정도 되므로(부산지역 전체 144개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 56개로 39%) 실업계 학생과 교과 개설이 되지 않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거의 근·현대사부분의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수치이다

<표 12> <한국근·현대사>과목의 심화 선택 형식

구분	학생선택과목 으로	학교지정선택 과목으로	시교육청지정 선택과목으로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44(28.8)	103(67.3)	0(0.0)	147(96.1)
	실업계	5(3.3)	1(0.7)	0(0.0)	6(3.9)
계		49(32.0)	104(68.0)	0(0.0)	153(100.0)

* $\therefore p < .05$

<한국근·현대사>과목 심화 선택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지정 선택과목으로”은 104곳(68.0%)로 나타났으며, “학생선택과목으로”는 49명(32.0%)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은 학생 개인의 선택과목 보다는 행정상 편리함이나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학교지정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보이며 역사교육 강화의 취지보다는 교육 운영의 용이함이 더 작용한 것이라 보인다.($p < .05$)

<표 13> <한국근·현대사>의 연간 단위 수

구분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26(17.3)	65(43.3)	53(35.3)	0(0.0)	144(96.0)
	실업계	5(3.3)	0(0.0)	1(0.7)	0(0.0)	6(4.0)
계		31(20.7)	65(43.3)	54(36.0)	0(0.0)	150(100.0)

*** $\therefore p < .001$

<한국근·현대사>의 연간 단위 수를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단위”가 65명(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단위” 54명(36.0%), “4단위” 31명(20.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6단위에서 8단위가 79.9%로 과목을 축소하고 집중적인 선택과목을 교육하고자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표 14> <한국근·현대사> 선택 시 수업 해당학년

(복수응답가능함)

구분	2학년 전체	2학년 인문	3학년 전체	3학년 인문	2학년 자연	3학년 자연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7(7.2)	36(23.5)	12(7.8)	83(54.2)	4(2.6)	1(0.7)	147(96.1)	21.545***
	실업계 0(0.0)	0(0.0)	4(2.6)	2(1.3)	0(0.0)	0(0.0)	6(3.9)	
계	11(7.2)	36(23.5)	16(10.5)	85(55.6)	4(2.6)	1(0.7)	153(100.0)	

*** $\therefore p < .001$

<한국근·현대사> 수업 해당학년을 살펴보면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계열별로 살펴보면 “3학년 인문”이 85명(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인문”이 36명(23.5%)으로 인문계열만 주로 선택 비율이 높다. 2, 3학년의 자연계는 실업계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에서 <한국근·현대사>가 개설되지 못하고 사회문화나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인문과 자연계열의 내신 석차를 고려하여 한 과목을 학년을 달리, 따로이 개설하여 자연계열에서는 형식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수능을 공부하기 위한 자습시간으로도 편법 운영되기도 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 국사 수업시수 보강 현황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χ^2
학교계열 별	인문계 24(12.8)	137(73.3)	161(86.1)	4.660*
	실업계 0(0.0)	26(13.9)	26(13.9)	
계	24(12.8)	163(87.2)	187(100.0)	

* $\therefore p < .05$

국사 수업시수 보강 현황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 163명(87.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24명(12.8%)로 나타났다.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창의적 재량 시간 등을 이용하여 국민 기본공통과정인 10학년의 국사시간의 수업 시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수와 과목간의 안배 문제 또는 학교 관리자의 무관심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16> 심화 선택과목 선정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가능)

구분	학생들의 선호도	교원의 수급문제	수능준비 와관련	학교특성 화성격과 연관	기타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37(20.0)	77(41.6)	43(23.2)	3(1.6)	1(0.5)	161(87.0)
	실업계	3(1.6)	11(5.9)	3(1.6)	7(3.8)	0(0.0)	24(13.0)
계		40(21.6)	88(47.6)	46(24.9)	10(5.4)	1(0.5)	185(100.)

*** $\therefore p < .001$

심화 선택과목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마다 “교원의 수급문제”가 88명(47.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수능준비와 관련”이 46명(24.9%)이며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40명(21.6%) 순이다. 실업계열은 특성화와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교원 수급 다음으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은 크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7>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독립과 선택과목에 대한 생각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49(19.8)	55(22.2)	3(1.2)	98(39.5)	9(3.6)	214(86.3)	5.067
	실업계	7(2.8)	6(2.4)	2(0.8)	16(6.5)	3(1.2)	34(13.7)	
교직 경력 별	10년미만	14(5.6)	10(4.0)	2(0.8)	22(8.9)	2(0.8)	50(20.2)	7.019
	10년-20년	24(9.7)	23(9.3)	0(0.0)	40(16.1)	4(1.6)	91(36.7)	
	20년이상	18(7.3)	28(11.3)	3(1.2)	52(21.0)	6(2.4)	80(43.1)	
성별	남	25(10.1)	38(15.3)	2(0.8)	69(27.8)	7(2.8)	141(56.9)	5.357
	여	31(12.5)	23(9.3)	3(1.2)	45(18.1)	5(2.0)	107(43.1)	
계		56(22.6)	61(24.6)	5(2.0)	114(46.0)	12(4.8)	248(100.0)	

- ①근현대사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
 ②선택과목이 되어 역사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③국사수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④국사에 포함하여 필수과목이 되어야한다
 ⑤국사에 포함하여 심화선택과목화 하여야한다.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독립과 선택과목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과 성별과 무관하게 전체 응답자 중 114명 (46.0%)이 “국사에 포함하여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과목이 되어 역사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가 61명 (24.6%), “근현대사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가 56명(22.6%) 이 있다. 교사들은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독립과목이 되면 심화 학습의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선택화로 인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역사학습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p < .05$)

<표 18>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의 필요성

구분		매우필요 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114(61.6)	37(20.0)	6(3.2)	1(0.5)	0(0.0)	158(85.4)	3.488
	실업계	20(10.8)	4(2.2)	3(1.6)	0(0.0)	0(0.0)	27(14.6)	
계		134(72.4)	41(22.2)	9(4.9)	1(0.5)	0(0.0)	185(100.0)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이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가 134명(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약간 필요하다”가 41명(22.2%), “보통이다”가 9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교사가 세계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이며 현재 세계사 교육의 문제점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세계사는 심화선택과목이 되면서, 사회과 교과목들 중에서 매우 낮은 선택율과 수능 응시율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학습의 필요성이 항상 강조되곤 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이 처한 상황은 사뭇 다르다. 이 현실과 학교 교육 사이의 오랜 불일치는 세계의 여러 나라 민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현재를 이해하는 키워드로써 근현대 세계사의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²⁸⁾

²⁸⁾ 허신혜, <중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근현대 인식>, 《선인》, 2005, p402.

<표 19> 중학교 <사회>에 속했던 역사과 독립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45(64.2)	25(11.1)	20(8.8)	2(0.9)	6(2.7)	198(87.6)	.694
	실업계	22(9.7)	3(1.3)	2(0.9)	0(0.0)	1(0.4)	28(12.4)	
계		167(73.9)	28(12.4)	22(9.7)	2(0.9)	7(3.1)	226(100.0)	

- ① 역사교육 강화정책으로 환영한다
 ② 내용만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
 ③ 전공 교사 확보가 우려 된다
 ④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⑤ 고등학교 역사교육과 차별화가 어렵다

중학교 <사회>에 속했던 역사과의 독립에 대한 생각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교육 강화정책으로 환영한다”가 167명(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용만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가 28명(12.4%), “전공교사 확보가 우려된다”가 22명(9.7%) 순으로 역사 교사들은 중학교에서의 역사 독립을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가운데에서도 국사, 세계사가 통합되어 내용이 많아져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하며 통합사회 교육체제에서 비전공 교사가 역사를 가르쳐오다가 갑자기 역사수업이 늘어나면 전공 교사의 수급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표 20> 대학의 <국사> 가산점 부여의 영향

구분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41(21.8)	86(45.7)	28(14.9)	5(2.7)	1(0.5)	161(85.6)	1.125
	실업계	5(2.7)	17(9.0)	4(2.1)	1(0.5)	0(0.0)	27(14.4)	
계		46(24.5)	103(54.8)	32(17.0)	6(3.2)	1(0.5)	188(100.0)	

대학에서 국사를 필수 응시과목 선택 등 가산점 부여에 따른 영향 살펴보면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는 46명(24.5%), “그렇다”가 103명(5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32명(17.0%), “그렇지 않다”는 6명(3.2%), “매우 그렇지 않다”는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사> 가산점 부여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의 위상 변화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0.7)	38(25.0)	36(23.7)	50(32.9)	4(2.6)	129(84.9)	4.345
	실업계	0(0.0)	6(3.9)	3(2.0)	12(7.9)	2(1.3)	23(15.1)	
계		1(0.7)	44(28.9)	39(25.7)	62(40.8)	6(3.9)	152(100.0)	

- ①매우 약화될 것이다
 ②약화될 것이다
 ③변화가 없다
 ④국사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⑤매우 강화될 것이다

국사과목 선택에 영향을 줄 경우 <한국근·현대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강화 될 것이다”가 6명(3.9%), “국사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가 62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다”가 39명(25.7%), “약화될 것이다”가 44명(28.9%), “매우 약화될 것이다”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사 113명(74.3 %)으로 지역 대학인 부산대학교의 전형 방식이므로 국사와 근현대사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두 과목을 다 선택하기 위해 수업하기보다는 3학년 인문계열에 배정되어있는데 근현대사 교과 수업이 일부 국사 수업으로 변칙 할애되어 <한국근·현대사> 수업의 축소를 초래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로 역사과 교사들의 갈등과 고민을 불러온다.

(3)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

교사들이 <한국근현대사>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에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분석하였다.

<표 22> 10학년 <국사>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2(1.1)	12(6.5)	28(15.2)	70(38.0)	46(25.0)	158(85.9)	6.823
	실업계	0(0.0)	0(0.0)	4(2.2)	18(9.8)	4(2.2)	26(14.1)	
교직 경력 별	10년미만	2(1.1)	2(1.1)	7(3.8)	12(6.5)	12(6.5)	35(19.0)	16.690*
	10년-20년	0(0.0)	2(1.1)	14(7.6)	32(17.4)	21(11.4)	69(37.5)	
	20년이상	0(0.0)	8(4.3)	11(6.0)	44(23.9)	17(9.2)	80(43.5)	
계		2(1.1)	12(6.5)	32(17.4)	88(47.8)	50(27.2)	184 (100.0)	

*: $P < .05$

10학년 <국사>의 근현대사 단원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가 88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가 50명(27.2%)로 교사의 75%가 스스로 주당 2시간의 국사수업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근·현대사>과목의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이후 근현대사 교육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낀다. 단지 고무된 상황이라면 10년 이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한국근·현대사>과목의 문제를 인식하여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에 시간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경력별, 성별과 학교계열별로 10학년 <국사>의 근현대사 단원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표 23> <한국근·현대사> 부분의 교육과 연수

구분		받은 적이 있다	별로 받은 적이 없다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25(13.3)	81(43.1)	55(29.3)	161(85.6)	3.968
	실업계	6(3.2)	8(4.3)	13(6.9)	27(14.4)	
계		31(16.5)	89(47.3)	68(36.2)	188(100.0)	

<한국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한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은 적이 있다”가 31명(16.5%) “별로 받은 적이 없다”가 89명(47.3%), “전혀 받은 적이 없다”가 68명(36.2%),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6.5%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근현대사 부분의 연수 기회는 별로 없다고 보여 진다. 학생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은 교사의 올바른 지식과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면 연수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4> <한국근·현대사> 수업의 애로점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9(5.5)	29(17.7)	54(32.9)	45(27.4)	21(12.8)	158(96.3)	9.554
	실업계	0(0.0)	4(2.4)	2(1.2)	0(0.0)	0(0.0)	6(3.7)	
교직경 력별	10년미만	1(0.6)	11(6.7)	8(4.9)	9(5.5)	5(3.0)	34(20.7)	13.195
	10년-20년	5(3.0)	16(9.8)	19(11.6)	14(8.5)	7(4.3)	61(37.2)	
	20년이상	3(1.8)	6(3.7)	29(17.7)	22(13.4)	9(5.5)	69(42.1)	
계		9(5.5)	33(20.1)	56(34.1)	45(27.4)	21(12.8)	164(100.0)	

- ①역사용어의 어려움
- ②사전지식이 없는 생소함
- ③역사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
- ④너무 정치사 위주의 건조함
- ⑤기타

<한국근·현대사>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살펴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가 56명(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너무 정치사 위주의 건조함”이 45명(27.4%), “사전지식이 없는 생소함”이 33명(20.1%), “기타”가 21명(12.8%), “역사용어의 어려움”이 9명(5.5%)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근현대사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사의식이 우리사회가 그동안 권력을 쥐고 있는 무리들의 정당성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인 만큼, 거의 모든 분야가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권력의 등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역사인 근현대사는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내용들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입해온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관념을 갖고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르칠 때는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학생들도 교사들의 수업 내용에 29)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역사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가 많은 반면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는 “사전 지식이 없는 생소함”이 더 애로점으로 나타났다.

29) 신병철, <왜 중고교에서는 현대사 교육은 외면하나>, p65 .역사가 10인에게 듣는다.

<표 25> <한국근·현대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재연구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56(27.6)	55(27.1)	36(17.7)	23(11.3)	25(12.3)	195(96.1)	4.128
	실업계	4(2.0)	1(0.5)	1(0.5)	2(1.0)	0(0.0)	8(3.9)	
교직경 력별	10년미만	16(7.9)	11(5.4)	6(3.0)	8(3.9)	10(4.9)	51(25.1)	11.872
	10년-20년	24(11.8)	15(7.4)	16(7.9)	8(3.9)	9(4.4)	72(35.5)	
	20년이상	20(9.9)	30(14.8)	15(7.4)	9(4.4)	6(3.0)	80(39.4)	
성별	남	26(12.8)	42(20.7)	20(9.9)	6(3.0)	13(6.4)	107(52.7)	21.577** *
	여	34(16.7)	14(6.9)	17(8.4)	19(9.4)	12(5.9)	96(47.3)	
계		60(29.5)	56(27.6)	37(18.2)	25(12.3)	25(12.3)	203(100.0)	

①인터넷 웹자료의 활용

②기존의 참고서활용

③출판사의 지도용 지침서 활용

④TV 등 역사다큐물 활용

⑤기타

*** : $p < .001$

<한국근·현대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재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웹자료의 활용”이 60명(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참고서 활용”이 56명(27.6%), “출판사의 지도용 지침서 활용”이 37명(18.2%), “TV 등 역사 다큐물 활용”과 “기타”가 25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교사는 기존의 참고서와 인터넷 웹자료의 이용이 많았고, 여교사는 인터넷 웹자료 활용이 제일 많고, TV 등 역사다큐를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p < .001$).

<표 26> <한국근·현대사>의 효율적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21(12.3)	46(26.9)	15(8.8)	34(19.9)	49(28.7)	165(96.5)	8.370
	실업계	2(1.2)	4(2.3)	0(0.0)	0(0.0)	0(0.0)	6(3.5)	
교직경 력별	10년미만	6(3.5)	12(7.0)	4(2.3)	5(2.9)	12(7.0)	39(22.8)	3.459
	10년-20년	9(5.3)	20(11.7)	5(2.9)	11(6.4)	18(10.5)	63(36.8)	
	20년이상	8(4.7)	18(10.5)	6(3.5)	18(10.5)	19(11.1)	69(40.4)	
성별	남	13(7.6)	27(15.8)	5(2.9)	20(11.7)	31(18.1)	96(56.1)	4.373
	여	10(5.8)	23(13.5)	10(5.8)	14(8.2)	18(10.5)	75(43.9)	
계		23(13.5)	50(29.2)	15(8.8)	34(19.9)	49(28.7)	171(100.0)	

- ① 재교육차원에서 연수를 강화
- ②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배부
- ③ 역사교사모임의 활성화
- ④ 역사과 과목의 위상을 강화
- ⑤ 국사처럼 필수 과목으로 채택

<한국근·현대사>의 효율적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배부”가 50명(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사처럼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49명(28.7%), “역사과 과목의 위상을 강화”가 34명(19.9%), “재교육 차원에서 연수를 강화”가 23명(13.5%), “역사 교사모임의 활성화”가 15명(8.8%)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첫 번째 전제가 필수과목이라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수업태도와 관심을 갖는다는 자명한 이론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개개인인 수업자료를 직접 제작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 모임이나 역사단체 혹은 역사연구회에서 근현대사 관련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 자료, 다큐 등의 지도 자료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7>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경향

구분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들어 본 적 있다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계	χ^2
교직경력별	10년미만	4(2.2)	20(10.8)	8(4.3)	1(0.5)	2(1.1)	35(18.8)
	10년-20년	4(2.2)	28(15.1)	25(13.4)	11(5.9)	2(1.1)	70(37.6)
	20년이상	4(2.2)	23(12.4)	37(19.9)	14(7.5)	3(1.6)	81(43.5)
성별	남	11(5.9)	45(24.2)	41(22.0)	15(8.1)	2(1.1)	114(61.3)
	여	1(0.5)	26(14.0)	29(15.6)	11(5.9)	5(2.7)	72(38.7)
계		12(6.5)	71(38.2)	70(37.6)	26(14.0)	7(3.8)	186(100.0)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다”가 12명(6.5%), “대체로 알고 있다”가 71명(38.2%), “들어 본 적 있다”가 70명(37.6%), “모르겠다”가 26명(14.0%), “처음 들어본다”가 7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은 83명(44.7%)으로 역사학계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알고자하는 성향이 비교적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경력이 10년 미만의 교사가 경력이 20년 이상의 교사들 보다 새로운 역사학의 경향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8>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를 쓰고, 역사를 공유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한 생각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동의하 지 않는다	계	χ^2
교직경 력별	10년미만	4(2.2)	13(7.1)	15(8.2)	3(1.6)	35(19.0)
	10년-20년	3(1.6)	25(13.6)	37(20.1)	4(2.2)	69(37.5)
	20년이상	2(1.1)	30(16.3)	43(23.4)	5(2.7)	80(43.5)
성별	남	7(3.8)	38(20.7)	62(33.7)	8(4.3)	115(62.5)
	여	2(1.1)	30(16.3)	33(17.9)	4(2.2)	69(37.5)
계	9(4.9)	68(37.0)	95(51.6)	12(6.5)	184(100.0)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를 쓰고, 역사를 공유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동의한다”가 9명(4.9%), “동의한다”가 68명(37.0%), “동의하지 않는다”가 95명(5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2명(6.5%)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교직 경력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 역사 분쟁 속에서 역사인식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한·중·일 공동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결과물로서 3국 공동의 역사 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가 최초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교사들의 58.1%는 이러한 공동 역사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관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3국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병렬하거나, 정치사 중심과 개별 국민 국가사를 나열하게 된 문제점³⁰⁾ 등을 인식함으로써 자국사 위주의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다소 보수적이며 경직된 입장을 갖고 있다.

30) 최숙, <동북공정과 관련한 국내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한·중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인터넷 자료, 2006, p5.

<표 29> <한국근·현대사> 수능의 선택비율

구분		10%미만	10-30%	30-50%	50-70%	70%이상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3(8.5)	40(26.1)	40(26.1)	32(20.9)	23(15.0)	148(96.7)	16.347**
	실업계	3(2.0)	0(0.0)	0(0.0)	2(1.3)	0(0.0)	5(3.3)	
계		16(10.5)	40(26.1)	40(26.1)	34(22.2)	23(15.0)	153(100.0)	

** $\therefore p < .01$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과목 선택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이상”이 23명(15%), “50-70%”가 34(22.2%), “10-30%”와 “30-50%”가 40명(26.1%), “10%미만”이 16명(10.5%)으로 대체로 선택율이 50%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율이 비교적 낮다.

<표 30>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미선택·포기하는 이유 (복수응답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기타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00(62.9)	9(5.7)	4(2.5)	36(22.6)	4(2.5)	153(96.2)	11.693*
	실업계	3(1.9)	2(1.3)	1(0.6)	0(0.0)	0(0.0)	6(3.8)	
계		103(64.8)	11(6.9)	5(3.1)	36(22.6)	4(2.5)	159(100.0)	

* $\therefore p < .05$

- ① 개념이 어렵고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 ② 상위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므로 표준점수가 낮기 때문에
- ③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 ④ 암기위주의 과목이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탐구 선택에서 <한국근·현대사> 제외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이 어

렵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가 103명(6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기위주의 과목이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가 36명(22.6%), “상위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므로 표준점수가 낮기 때문에”가 11명(6.9%),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가 5명(3.1%), “기타”가 4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를 가르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가르쳐야 할 내용의 양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거기다 근현대사가 독립교과로 나가면서 내용이 많아지고 자세한 서술을 해야 하면서 개념의 정립이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일부 교과서 내용은 이데올로기 문제에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므로 교사가 이러한 시기에 그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은 어떻게 구조화하여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거기다가 역사교육도 역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역사교육의 당면한 목표이다 보니 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계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선택에서 <한국근·현대사> 제외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이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표 31> <한국근·현대사> 수능 미 선택 시 학생들의 수업태도

구분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0.7)	6(3.9)	21(13.7)	65(42.5)	54(35.3)	147(96.1)	10.506*
	실업계	0(0.0)	2(1.3)	0(0.0)	2(1.3)	2(1.3)	6(3.9)	
계		1(0.7)	8(5.2)	21(13.7)	67(43.8)	56(36.6)	153(100.0)	

* $\therefore p < .01$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참여도를 살펴보면<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편이다” 1명(0.7%), “높은 편이다”는 8명(5.2%), “보통이다”가 21명(13.7%), “낮은 편이다” 65명(42.5%), “매우 낮은 편이다”가 56명(36.6%)으로 대체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의 선택여부에 따라 수업 태도나 참여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진학과 관련하여 몇 개의 과목만을 수능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나머지 운영되는 교과들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노력 정도만 하고 수업참여도나 학습 태도는 좋지 못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이끌어 가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한 학급 내에서 선택학생과 비 선택 학생들의 반응이 상반되고, 수능 교과가 아닌 과목들은 교사들이 자습감독으로 전락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4) 역사 일반에 관한 내용

<표 32> 학생들의 역사의식 정립 시기

(복수응답가능)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진출 후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2(6.3)	29(15.3)	102(54.0)	16(8.5)	5(2.6)	164(86.8)	6.237
	실업계	4(2.1)	8(4.2)	11(5.8)	2(1.1)	0(0.0)	25(13.2)	

학생들의 역사의식 정립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가 113명(59.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37명(19.6%), “대학교”가 18명(9.5%), “초등학교”가 16명(8.5%), “사회에 진출 후”가 5명(2.6%)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가 역사관 정립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함으로 자국사를 비롯한 역사관, 세계관, 민족관 등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역사 교육이 지도가 필요하다.

<표 33> 학생들의 <한국근·현대사> 지식 습득 방법

(복수응답가능)

구분		대학 교육과정	영상, 언론매체	주변 지인들	드라마	역사서 적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8(4.1)	63(32.0)	0(0.0)	16(8.1)	80(40.6)	167(84.8)	4.616
	실업계	4(2.0)	12(6.1)	0(0.0)	4(2.0)	10(5.1)	30(15.2)	
성별	남	7(3.6)	37(18.8)	0(0.0)	14(7.1)	63(32.0)	121(61.4)	8.090*
	여	5(2.5)	38(19.3)	0(0.0)	6(3.0)	27(13.7)	76(38.6)	
계		12(6.1)	75(38.1)	0(0.0)	20(10.2)	90(45.7)	197(100.0)	

수업 외 <한국근·현대사> 지식 습득 방법을 살펴보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서적”이 90명(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 언론 매체”가 75명(38.1%), “드라마”가 20명(10.2%), “대학 교육과정”이 12명(6.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하지 않고 근현대사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사 관련 <태백산맥> <아리랑> <장길산> <남부군> 등의 서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흥미를 추가한 스토리 위주로 받아들이면서 접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스페셜>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등의 단편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시절 교과를 통한 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지 않으며 흥미 위주의 책과 픽션을 가미한 영상·매체를 통한 일방적이며 왜곡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표 34>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영향

구분		매우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이 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13(6.9)	79(42.0)	32(17.0)	32(17.0)	5(2.7)	161(85.6)	4.485
	실업계	4(2.1)	16(8.5)	5(2.7)	2(1.1)	0(0.0)	27(14.4)	
교직경 력별	10년미만	1(0.5)	17(9.0)	8(4.3)	8(4.3)	2(1.1)	36(19.1)	6.681
	10년-20년	8(4.3)	35(18.6)	13(6.9)	14(7.4)	0(0.0)	70(37.2)	
	20년이상	8(4.3)	43(22.9)	16(8.5)	12(6.4)	3(1.6)	82(43.6)	
성별	남	15(8.0)	58(30.9)	20(10.6)	19(10.1)	4(2.1)	116(61.7)	7.193
	여	2(1.1)	37(19.7)	17(9.0)	15(8.0)	1(0.5)	72(38.3)	
계		17(9.0)	95(50.5)	37(19.7)	34(18.1)	5(2.7)	188(100.0)	

2006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가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도움이 된다”가 17명(9.0%), “약간 도움이 된다”가 95명(50.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7명(19.7%), “별로 도움이 안된다”가 34명(18.1%),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5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입장은 한국사 검정이 역사교육 강화에 어떠한 형태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 관련 여러 시험에 일정 자격취득이 진학이나 취업에 반영이 되어 효율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입시나 공무원 시험 등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역사 교육 강화에 그다지 큰 의미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5) 교사 설문분석의 결과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의 반응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제 7차 역사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인식, 교사가 교재 연구와 수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에 관한 인식, 마지막으로는 역사교육을 포함한 역사 전반에 걸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를 보면 부산 시내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의 채택이 일반계에서 153(81.8%)곳, 실업계가 6(3.2%)곳으로 159(85.0%)곳에서 선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교 지정 선택과목으로”는 104곳(68.0%)로 나타났으며, “학생선택과목으로”는 49명(32.0%),이고 연간 수업 시수는 “6단위”가 65명(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단위” 54명(36.0%), 개설학년은 학교계열별로 살펴보면 “3학년 인문”이 85명(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인문”이 36명(23.5%)으로 인문계열만 주로 심화 선택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혹은 자연계열에서 인문 계열과 동일학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면 평가에 불리한 점을 들어 다른 학년에 배치한다. 그리고 3학년 자연계열의 수업은 형식적이거나 자습시간으로 많이 운영되는 편이다. 더구나 부산 시내 실업계열 고등학교가 50개교로 대부분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개설 되지 못하였다.

둘째,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교육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따라서 주당 2시간인 고교 1학년 국사 수업이 3시간으로 늘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추가로 진행되는 시수는 교과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하달한적 있지만 87.2%의 교사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수 할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0학년 <국사> 시간에 근현대사 단위 수업 현황에 있어서 75%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근현대사의 교육의 기회는 일부 만에게 주어진다고 보아야한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선택 운영은 교과간의 안배, 그리고 교사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기준이 되므로 따로 국사 시간에 시수를 더 부여하면 역사 교사 확보 문제가 달려있고, 타 교과의 시수 조정이나 교사 수 조정이 필요한 학교 현장 실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편은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접한 대다수 교사는 <한국근현대사>의 독립을 역사교육의 불균형을 심히 우려하고 국사 속에 한국근현대사를 포함 필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46%)

셋째, 현재 중학교 국사의 40% 이상을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고,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 중 역사전공자는 불과 20% 내외에 지나지 않는 개탄할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남아도는 교사의 수급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교련, 실업, 제2외국어 교사에게도 형식적인 연수를 거쳐 공통사회 교사 자격증을 주었다. 이렇게 남발된 공통사회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중학교 '사회'안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단지 운영사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편법적인 정책은 학교 역사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³¹⁾ 그래서 교사들은 2010년 중학교 '사회'에서 '역사과'가 독립 문제를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환영하면서도 전공교사의 확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넷째, <한국근·현대사> 교수-학습에 대해서는 교사들 자체가 전공교과이지만 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이 대학 시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역사과 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도 현대사 강의는 별로 없다. 또한 <한국근현대사>과목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국사> 시간에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

31) 안병우, <역사교육 정상화'교과'의 독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역사교육정상화 대책위원회 자료, <역사교육 94>, 2005, p305.

지지 않았으므로 학습 경험의 부족과 수업지도 경험 부재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상황이며 근현대사 단원과 관련 연수를 받을 기회도 없었다. 여기에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사건들의 애로점(34.1%)과 이로 인한 갈등, 대립 반목, 이념, 이데올로기, 권력 투쟁 등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라도 응답하며 교과서가 너무 정치사 위주로 딱딱하고 건조하여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27.4%)요인 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는 재해석으로 인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역사학이지만 검정 교과서의 선정부터 현대사 수업지도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웹자료 자료 활용(29.5%), TV 신문 등 영상정보매체를 통해 교재를 연구하고(12.3%) 수업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만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인 성향과 관심 때문에 수업지도가 한쪽으로 편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포스터모더니즘의 역사학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포스터모더니즘, 신민족주의 등의 새로운 학설과 연구 동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신지식을 거부하고는 다양한 해석과 어렵고 복잡한 이해를 요구하는 근현대사 수업이 효율적으로 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일과에 부담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합한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근현대사 수업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공유하여 동영상이나 영상 매체를 이용한 알찬 수업을 하고자 하며 참고서로 이용할 좋은 역사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다.

다섯째, 역사 일반에 관련된 인식 조사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59.8%)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사 능력시험이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60%), 하나의 자격시험처럼 인문관련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역사 교육을 강화의 구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선택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세계화의 보편성속에서 한국과 한국인이 갖는 민족적 특수성을 이해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사업을 통해서 야기된 역사분쟁 문제를 직시하고 핵심을 이해하며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사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과과의 이기주의이거나 국수주의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2) 학생 설문지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800부를 배포하여 미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대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7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5>과 같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 377명과 여학생 345명, 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중 인문계열 279명, 자연계열 153명, 실업계열 293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한국근·현대사>과목의 개설유무별로 보면 개설된 학교의 학생이 340명, 미개설된 학교 학생이 385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의 설문지 내용은 첫째, 학생의 기본 소속계열과 성별을 질문하는 기초조사와 둘째,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관심을 셋째,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을 넷째, 역사일반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근현대사 단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근현대사 이해도를 알기위한 문제를 만들었다.

(1) 기초조사

<표 3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명	빈도(%)
성별	남자	377	52.0
	여자	345	48.0
학교계열별	인문계	279	38.5
	자연계	153	21.1
	실업계	293	40.4
한국근현대사 과목 개설 유무별	개설	340	46.9
	미개설	385	53.1
전체		725	100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표 36>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여부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χ^2
학교 계열별	인문계	51(7.0)	89(12.3)	80(11.0)	29(4.0)	29(4.0)	278(38.4)
	자연계	40(5.5)	49(6.8)	49(6.8)	8(1.1)	7(1.0)	153(21.1)
	실업계	33(4.6)	65(9.0)	131(18.1)	33(4.6)	31(4.3)	293(40.5)
개설	개설	59(8.1)	107(14.8)	105(14.5)	36(5.0)	32(4.4)	339(46.8)
유무별	미개설	65(9.0)	96(13.3)	155(21.4)	34(4.7)	35(4.8)	385(53.2)
계		124(17.1)	203(28.0)	260(35.9)	70(9.7)	67(9.3)	724(100.0)

*** : $p < .001$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124명(17.1%), “그렇다”가 203명(28.0%), “보통이다”가 260명(35.9%)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70명(9.7%), “매우 그렇지 않다”가 67명(9.3%)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별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7>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찬성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학교 계열별	인문계	97(20.5)	52(11.0)	16(3.4)	4(0.8)	6(1.3)	175(37.0)
	자연계	42(8.9)	44(9.3)	11(2.3)	10(2.1)	2(4)	109(23.0)
	실업계	79(16.7)	67(14.2)	18(3.8)	11(2.3)	14(3.0)	189(40.0)
계		218(46.1)	163(34.5)	45(9.5)	25(5.3)	22(4.7)	473(100.0)

* : $p < .05$

①우리민족의 역사이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 ②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 ③교양과 상식에 필요하므로
- ④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므로
- ⑤기타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역사이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가 218명(46.1%)로 나타났으며,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가 163명(34.5%), “교양과 상식이 필요함으로”가 45명(9.5%),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므로”가 25명(5.3%), “기타”가 22명(4.7%)으로 나타났다.

<표36><표37>에서 국사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45%의 찬성과 보통이다가35%로 긍정적 반응이 80%이상으로 학생들은 자국사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계열별 국사교육 강화 정책 찬성 이유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38> <한국근·현대사>의 독립에 대한 생각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성별	남자	83(10.7)	57(7.4)	94(12.1)	51(6.6)	117(15.1)	402(51.9)
	여자	133(17.2)	55(7.1)	75(9.7)	59(7.6)	50(6.5)	372(48.1)
학교 계열 별	인문계	110(14.2)	49(6.3)	53(6.8)	33(4.3)	63(8.1)	308(39.8)
	자연계	41(5.3)	22(2.8)	33(4.3)	28(3.6)	34(4.4)	158(20.4)
	실업계	65(8.4)	41(5.3)	83(10.7)	49(6.3)	70(9.0)	308(39.8)
개설 유무 별	개설	129(16.7)	55(7.1)	60(7.8)	49(6.3)	80(10.3)	373(48.2)
	미개설	87(11.2)	57(7.4)	109(14.1)	61(7.9)	87(11.2)	401(51.8)
계		216(27.9)	112(15.5)	169(21.8)	110(14.2)	167(21.6)	774(100.0)

- ①선택과목이 되어 국사 수업의 부담이 줄었다
- ②선택과목을 유지하되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반영을 권장 한다

③국사 안에 다 포함 되어 필수로 배워야 한다

④독립과목으로 둘 다 필수로 배워야 한다

⑤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 $p < .01$, *** : $p < .001$

국사에서 독립되어 선택 심화과목이 된 <한국근·현대사> 과목에 대한 생각 대해 살펴보면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과목이 되어 국사 수업의 부담이 줄었다”가 216명(27.9%)으로 나타났으며, “국사 안에 다 포함 되어 필수로 배워야 한다”가 169명(21.8%),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가 167명(21.6%), “선택과목을 유지하되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반영을 권장한다”가 112명(15.5%), “독립과목으로 둘 다 필수로 배워야 한다”가 110명(14.2%)으로 나타났다.

<한국근·현대사>가 개설된 인문계열 등은 선택과목화 됨으로써 국사수업 부담이 줄어들고 수능에서 역사 과목을 나누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에 찬성을 보이거나 <한국근·현대사>가 미개설 된 학생들은 국사 안에 포함되어 필수로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로 <국사>과목의 내용은 방대하여 수능의 한 과목으로서 학습량이 적은 타 사회과와 똑 같은 같이 선택 조건이라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두 과목으로 분리되어 학습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먼저 생각될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의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국사>에 포함되어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나온 듯하다.

성별 개설유무별로 ($p < .001$), 학교계열별 ($p < .01$)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한국근·현대사> 미선택 시 역사인식에 불균형을 초래 문제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χ^2
학교 계열별	인문계	35(4.9)	103(14.4)	74(10.3)	45(6.3)	16(2.2)	273(38.1)	40.609***
	자연계	27(3.8)	49(6.8)	41(5.7)	26(3.6)	9(1.3)	152(21.2)	
	실업계	25(3.5)	60(8.4)	133(18.5)	49(6.8)	25(3.5)	292(40.7)	
개설 유무별	개설	40(5.6)	124(17.3)	96(13.4)	53(7.4)	21(2.9)	334(46.6)	18.975***
	미개설	47(6.6)	88(12.3)	152(21.2)	67(9.3)	29(4.0)	383(53.4)	
계		87(12.1)	212(29.6)	248(34.6)	120(16.7)	50(7.0)	717(100.0)	

*** : $p < .001$

<한국근·현대사>미 선택 시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매우 그렇다”가 87명(12.1%), “그렇다”가 212명(29.6%), “보통이다”가 248명(34.6%)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120명(16.7%), “매우 그렇지 않다”가 50명(7.0%)으로 나타났다. 불균형을 심각히 우려하는 41.7%의 응답이 있는 가운데 실업계를 포함한 <한국근·현대사> 미개설 학교의 학생들의 40%는 “보통이다”의사를 보이며 역사인식 불균형을 심각하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40>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구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 다	전혀 필요없다	계	χ^2
성별	남자	80(11.0)	146(20.2)	117(16.2)	10(1.4)	24(3.3)	377(52.10)
	여자	115(15.9)	172(23.8)	54(7.5)	5(0.7)	1(0.1)	347(47.9)
학교 계열별	인문계	90(12.4)	123(17.0)	50(6.9)	8(1.1)	8(1.1)	279(38.5)
	자연계	45(6.2)	67(9.3)	35(4.8)	2(0.3)	3(0.4)	152(21.0)
	실업계	60(8.3)	128(17.7)	86(11.9)	5(0.7)	14(1.9)	293(40.5)
개설 유무별	개설	107(14.8)	154(21.3)	62(8.6)	6(0.8)	11(1.5)	340(47.0)
	미개설	88(12.2)	164(22.7)	109(15.1)	9(1.2)	14(1.9)	384(53.0)
계		195(26.9)	318(43.9)	171(23.6)	15(2.1)	25(3.5)	724(100.0)

** : $p < .01$, *** : $p < .001$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표 4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하다”가 195명(26.9%), “약간 필요하다”가
318명(43.9%)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171명(23.6%), “전혀 필요없다”
가 25명(3.5%), “필요없다”가 15명(2.1%)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94. 4%가<한국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표 38> <한국근·현대사>의 독립에 대한 생각’
‘<표 39> <한국근·현대사> 미선택 시 역사인식에 불균형을 초래 문제’의
결과와도 관계 지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과 입시 등을 떠나서 <국사>
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사>까지 자국사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과 주변
여러 나라와의 역사 분쟁 문제 을 바로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성
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p < .001$)과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p < .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사회탐험영역 11개 과목 중 자신이 택한 4개 과목

구분	윤리	국사	한국 근· 현대 사	세계 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사회	정치	계	χ^2
성 별	남 자	97 (8.9)	85 (7.8)	46 (4.2)	3 (0.3)	126 (11.5)	25 (2.3)	3 (0.3)	6 (0.5)	134 (12.3)	23 (2.1)	5 (0.5)	553 (50.7)
	여 자	124 (7.8)	11 (1.0)	120 (11.0)	23 (2.1)	113 (10.4)	0 (0.0)	1 (0.1)	4 (0.4)	91 (8.3)	6 (0.5)	45 (4.1)	538 (49.3)
계		221 (20.3)	96 (8.8)	166 (15.2)	26 (2.4)	239 (21.9)	25 (2.3)	4 (0.4)	10 (0.9)	225 (20.6)	29 (2.7)	50 (4.6)	1091 (100.0)

185.832***

*** : $p < .001$

인문계열 중 사회탐험영역 11개 과목 중 자신이 택한 4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지리” 239명(21.9%)> “사회문화” 225명(20.6%)> “윤리” 221명(20.3%)> “<한국근·현대사>” 166명(15.2%)> “국사” 96명(8.8%)> “정치”> “법과 사회”> “세계사”>“세계지리”>“경제”> “경제지리” 순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문계열 지원자가 응시했던 사회탐구영역 별 지원도의 변화 <표 42>을 보면 국사의 응시율을 점차 떨어지고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가 응시율은 4위를 지키고 있다. 남녀 학생의 선호도 차이보다는 해당 교과목의 수업이 2학년에 개설 되었는가 아니면 3학년에 개설되었는가에 따라 선택에 차이가 있다.

성별 인문계열 중 사회탐험영역 11개 과목 중 자신이 택한 4과목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 2004-2006년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과 목 명	응 시 자 수(명)			비 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윤리	179,697 ③	158,584 ④	161,421 ④	
국사	159,052	100,189	69,507	
한국지리	232,370 ①	211,526 ②	214,499 ②	
세계지리	29,614	33,346	37,917	
경제지리	29,671	47,784	54,286	
한국 근.현대사	171,591 ④	172,706 ③	168,414 ③	
세계사	30,006	32,816	33,120	
법과 사회	54,911	62,584	62,434	
정치	98,856	102,487	106,392	
경제	84,485	86,666	88,068	
사회문화	229,100 ②	225,633 ①	227,422 ①	
	1,299,353	1,234,321	1,223,480	

(한국교육평가원 자료)

사회 탐구에서 수능 <국사>의 선택은 하향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대가 국사를 2005년 수능부터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대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사를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 중에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국사 과목 표준 점수가 떨어지기에 사회탐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국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사>도 가장 선호하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4순위에 속한다. 대부분 3과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됨으로 실질적, 최종적 선택 시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4과목을 맞추는 과목으로 변하였다.

<표 43> 인문계열에서 <한국근·현대사> 선택 이유

구분		학교에서 지정하여	개인적 선호하는 과목이라 서	점수가 잘 나와서	국사와 연계하여 학습하기 좋으니	기타	계	χ^2
성별	남자	35(18.4)	14(7.4)	4(2.1)	10(5.3)	5(2.6)	68(35.8)	11.077*
	여자	67(35.3)	40(21.1)	6(3.2)	4(2.1)	5(2.6)	122(64.2)	
개설	개설	98(51.6)	52(27.4)	9(4.7)	12(6.3)	10(5.3)	181(95.3)	4.218
유무별	미개설	4(2.1)	2(1.1)	1(0.5)	2(1.1)	0(0.0)	9(4.7)	
	계	102(53.7)	54(28.4)	10(5.3)	14(7.4)	10(5.3)	190(100.0)	

* : $p < .05$

인문계열 중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지정하여”가 102명(53.7%)으로 나타났다으며, “개인적 선호하는 과목이라서”가 54명(28.4%), “국사와 연계하여 학습하기 좋으니”가 14명(7.4%), “점수가 잘 나와서”, “기타”가 각각 10명(5.3%)으로 나타났다.

선택의 경향을 보면 주로 학교 지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과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학생들이 원하는(인문계열 위주로) 10개의 과목을 전부 개설하면 학반 조직과 교과별 이동수업 학생수의 불균형, 교사 수급 문제 등이 있어 학생 순수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도 몇 과목의 경우는 교사 둘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 간 과목 교사들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됨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수능 응시할 대표적 과목을 정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능에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이유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44> <한국근·현대사>의 수능 미선택·포기 이유

구분	개인적 관심 없어서	점수가 잘 안나와서	수업의 이해가 어려워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 때문에	학교 선택과목 으로 지정되 지 않아서	계	χ^2	
성별	남자	31(14.4)	24(11.1)	19(8.8)	26(12.0)	22(10.2)	122 (56.5)	38.017***
	여자	9(4.2)	23(10.6)	11(5.1)	50(23.1)	1(0.5)	94(43.5)	
계		40(18.5)	47(21.8)	30(13.9)	76(35.2)	23(10.6)	216 (100.0)	

*** : $p < .001$

한국 근현대사를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 때문에”이 76명(35.2%)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잘 안나와서”가 47명(21.8%), “개인적 관심이 없어서”가 40명(18.5%), “수업의 이해가 어려워”가 30명(13.9%),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아서”가 23명(10.6%)으로 나타났다. 근현대사가 학습할 양과 암기할 양이 많다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수능의 점수와도 연결되어 모의고사를 치거나 내신 점수 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별 <한국 근·현대사>를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이유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45> 국사 · 근현대사 과목 응시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하 다	모르겠다	바람직하 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 지 않다	계	χ^2
성별	남자	45(6.3)	93(12.9)	116(16.1)	50(6.9)	72(10.0)	376(52.2)	21.730***
	여자	32(4.4)	106(14.7)	113(15.7)	64(8.9)	29(4.0)	344(47.8)	
학교 계열 별	인문계	34(4.7)	87(12.1)	84(11.7)	42(5.8)	30(4.2)	277(38.5)	25.296***
	자연계	22(3.1)	38(5.3)	34(4.7)	34(4.7)	24(3.3)	152(21.1)	
	실업계	21(2.9)	74(10.3)	111(15.4)	38(5.3)	47(6.5)	291(40.4)	
계		77(10.7)	199(27.6)	229(31.8)	114(15.8)	101(14.0)	720(100.0)	

*** : $p < .001$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국사나 근현대사 과목에 가산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바람직하다”가 77명(10.7%), “바람직하다”가 199명(27.6%), “모르겠다”가 229명(31.8%)으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가 114명(15.8%),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가 101명(14.0%), 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국민 역사교육 인식 조사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06.09 .22-23 실시)에서 <표19>와 동일 설문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가산점 부여에 찬성을 61.5 %나 보여준 반면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서는 ‘모르겠다’와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가 전체 60%로 시험 등의 가산점 부여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열의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가 실시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없고 어려운 과제가 하나 더 부여된다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성별 학교계열별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국사나 근현대사 과목에 가산점을 준다는 주장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46> 부산대학교에서 <국사> 선택 시 가산점 부여의 영향

구분		국사를 선택한다	국사와<한 국근·현대 사>를같이 선택한다	<한국근 ·현대사 >를선택 한다	국사와<한 국근·현대 사>를선택 하지않는다	계	χ^2
성별	남자	157(22.3)	105(14.9)	32(4.5)	73(10.4)	367(52.1)	67.480***
	여자	80(11.3)	109(15.5)	103(14.6)	46(6.5)	338(47.9)	
학교계 열별	인문계	89(12.6)	58(8.2)	101(14.3)	29(4.1)	277(39.3)	101.064***
	자연계	56(7.9)	53(7.5)	14(2.0)	23(3.3)	146(20.7)	
	실업계	92(13.0)	103(14.6)	20(2.8)	67(9.5)	282(40.0)	
	계	237(33.6)	214(30.4)	135(19.1)	119(16.9)	705(100.0)	

*** : $p < .001$

사회탐구 선택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사를 선택한다”가 237명(33.6%)으로 나타났으며,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같이 선택한다”가 214명(30.4%),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한다”가 135명(19.1%),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다”가 119명(16.9%)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조그만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산점에 민감하여 부산 지역 인문계열의 국사 선택율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별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 사회탐구 선택시 변화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

<표 47> 중학교 시기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구분		충분히 받았다	대강 받았다	보통이다	별로 받지 못했다	전혀 받지 못했다.	계	χ^2
성별	남자	28(3.9)	146(20.2)	86(11.9)	62(8.6)	55(7.6)	377(52.1)	13.676
	여자	49(6.8)	151(20.9)	65(9.0)	44(6.1)	38(5.2)	347(47.9)	**
학교 계열 별	인문계	17(2.3)	113(15.6)	48(6.6)	64(8.8)	37(5.1)	279(38.5)	57.411 ***
	자연계	16(2.2)	85(11.7)	32(4.4)	12(1.7)	8(1.1)	153(21.1)	
	실업계	44(6.1)	99(13.7)	71(9.8)	30(4.1)	48(6.6)	292(40.3)	
	계	77(10.6)	297(41.0)	151(20.9)	106(14.6)	93(12.8)	724(100.0)	

** : $p < .01$, *** : $p < .001$

중학교 사회시간에 근현대사 부분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대해 살펴보면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받았다”가 77명(10.6%), “대강 받았다”가 297명(41.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151명(20.9%), “별로 받지 못했다”가 106명(14.6%), “전혀 받지 못했다”가 93명(6.0%),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60%정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20%가 되어,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의 근현대사 단원 학습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학교 역사가 사회에 통합되어 2, 3학년에 걸쳐 세계사와 국사를 배우고 있어 반드시 역사 전공교사에게서 역사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자기 전공의 영역이 강한 부분에 쉽게 접근하여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이 없고 뚜렷한 역사 인식 없이 지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도 중학교의 실정은 공립학교의 사회과 교사 4명이 전원

역사 교사이거나 전원 일반사회나 지리 교사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사회과에 속하여 이동하며 전공을 배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학교<역사>라는 독립 교과로 분리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국사와 세계사를 수업할 수 있는 전공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성별, 학교계열별 중학교 사회시간에 근현대사 부분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표 48> 10학년 <국사> 수업시간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

구분	충분히 받았다	대강 받았다	보통 이다	별로 받지 못했다	전혀 받지 못했다	계	χ^2
학교 계열 별	인문계	10(1.4)	71(9.8)	44(6.1)	77(10.6)	76(10.5)	278(38.4)
	자연계	8(1.1)	69(9.5)	40(5.5)	24(3.3)	12(1.7)	153(21.1)
	실업계	8(1.1)	40(5.5)	52(7.2)	47(6.5)	146(20.2)	293(40.5)
개설 유무 별	개설	15(2.1)	99(13.7)	67(9.3)	84(11.6)	74(10.2)	339(46.8)
	미개설	11(1.5)	81(11.2)	69(9.5)	64(8.8)	160(22.1)	385(53.2)
계		26(3.6)	180(24.9)	136(18.8)	148(20.4)	234(32.3)	724(100.0)

** : $p < .01$, *** : $p < .001$

10학년 <국사> 수업시간의 근현대사 단원의 수업현황을 살펴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받았다”가 26명(3.6%), “대강 받았다”는 180명(24.9%), “보통이다” 136명(18.8%), “별로 받지 못했다”가 148명(20.4), “전혀 받지 못했다”가 234명(32.3%)으로 나타났다.

즉 근현대사 수업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별로 받지 못했다고 한 학생이 전체 52.7%이고 특히나 <한국근·현대사>가 미 개설된 학생의 58.1%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의 학습기회가 없다

는 것이다.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 근현대사 부분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9> 근현대사와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성별	남자	45(6.2)	122(16.9)	25(3.5)	118(16.3)	65(9.0)	375(51.9)	61.908***
	여자	31(3.3)	64(8.9)	94(13.0)	107(14.8)	51(7.1)	347(48.1)	
학교계열별	인문계	34(4.7)	64(8.9)	90(12.5)	65(9.0)	25(3.5)	278(38.5)	103.162***
	자연계	17(2.4)	44(6.1)	17(2.4)	43(6.0)	32(4.4)	153(21.2)	
	실업계	25(3.5)	78(10.8)	12(1.7)	117(16.2)	59(8.2)	291(40.3)	
개설유무별	개설	37(5.1)	73(10.1)	101(14.0)	89(12.3)	39(5.4)	339(47.0)	86.451***
	미개설	39(5.4)	113(15.7)	18(2.5)	136(18.8)	77(10.7)	383(53.0)	
계		76(10.5)	186(25.8)	119(16.5)	225(31.2)	116(16.1)	722(100.0)	

①둘 다 매우 관심이 높다

②국사에 관심이 있다

③근현대사에 관심이 높다

④둘 다 관심이 별로 없다

⑤둘 다 전혀 관심이 없다

*** : $p < .001$

근현대사와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에 대해 살펴보면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다 별로 없다”가 225명(31.2%)으로 나타났으며, “국사에 관심이 있다”가 186명(25.8%), “근현대사에 관심이 높다”가 119명(16.5%), “둘 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116명(16.1%), “둘 다 매우 관심이 높다”가 76명(10.5%)으로 나타났다.

관심도는 매우 복잡한 수치 구조를 갖고 있다. 국사에 관심을 표하는 것은 고대사 등에 익숙하고 흥미로운 부분이나 TV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

는 연유 때문인 것 같다. 인문계열 학생은 근현대사에 관심도가 더 높고, 실업계 학생들은 국사에는 관심을 보이거나 근현대사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심과 흥미가 있어 학습을 하고 지식이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가 개설되어 수업을 함으로써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역사관련 교과목이 그저 대입시라는 현실적이고 미시적 목적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적 비판의식을 형성하고 풍부한 역사 정보를 얻어서 현재를 이해하는데 역사교육은 역할은 필수 불가결이다.

성별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 근현대사와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0> <한국근·현대사> 의 바람직한 수업 형태

구분		강의식	모둠 수업	토론 수업	영상매체 활용	유적지 견학 등 체험위주	계	χ^2
성별	남자	71(9.9)	19(2.7)	43(6.0)	145(20.3)	95(13.3)	373(52.2)	15.209**
	여자	57(8.0)	12(1.7)	33(4.6)	180(25.2)	59(8.3)	341(47.8)	
학교 계열별	인문계	69(9.7)	6(0.8)	17(2.4)	129(18.1)	56(7.8)	277(38.8)	37.041***
	자연계	20(2.8)	2(0.3)	22(3.1)	70(9.8)	35(4.9)	149(20.9)	
	실업계	39(5.5)	23(3.2)	37(5.2)	126(17.6)	63(8.8)	288(40.3)	
개설 유무별	개설	72(10.1)	8(1.1)	30(4.2)	153(21.4)	72(10.1)	335(46.9)	11.720*
	미개설	56(7.8)	23(3.2)	46(6.4)	172(24.1)	82(11.5)	379(53.1)	
계		128(17.9)	31(4.3)	76(10.6)	325(45.5)	154(21.6)	714(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한국 근현대사의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매체 활용”이 325명(45.5%)으로 나타났으며, “유적지 견학 등 체험위주”가 154명(21.6%), “강의식”이 128명(17.9%), “토론수업”이

76명(10.6%), “모둠수업”이 31명(4.3%)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는 사실 지식 중심의 암기식 학습이나 현장학습 없이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역사 학습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계열별 한국 근현대사의 바람직한 수업 형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51> <한국근·현대사> 의 역사관·민족관 성립 영향 역할

구분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계	χ^2
성별	남자	46(6.4)	107(14.8)	159(22.1)	35(4.9)	29(4.0)	29.620***
	여자	41(5.7)	144(20.0)	131(18.2)	26(3.6)	3(0.4)	
학교계열별	인문계	35(4.9)	112(15.5)	91(12.6)	28(3.9)	11(1.5)	26.050***
	자연계	26(3.6)	57(7.9)	55(7.6)	9(1.2)	5(0.7)	
	실업계	26(3.6)	82(11.4)	144(20.0)	24(3.3)	16(2.2)	
계		87(12.1)	251(34.8)	290(40.2)	61(8.5)	32(4.4)	721(100.0)

** : $p < .01$, *** : $p < .001$

<한국근·현대사> 수업이 역사관 형성과 민족의식 성립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바람직하다”가 87명(12.1%), “바람직하다”가 251명(34.8%), “모르겠다”가 290명(40.2%)으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가 61명(8.5%),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가 32명(4.4%)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한국근·현대사>가 개설되었더라도 아직 수업은 진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여학생에게서 “바람직하다”

와 남학생에게서 “모르겠다” 또는 인문계에서 “바람직하다”와 실업계에서 “모르겠다”가 우세하게 대두되는 것도 수업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p < .001$) 그래서 수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통계 수치이다.

<표 52> <한국근·현대사> 단원에서 관심분야

구분	개항과 근대화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건국 후 민주정치 발전	북한문제와 통일문제	기타	계	χ^2
학교계 열별	인문계	28(3.9)	151(21.2)	55(7.7)	26(3.7)	12(1.7)	272(38.3)
	자연계	13(1.8)	90(12.7)	21(3.0)	21(3.0)	7(1.0)	152(21.4)
	실업계	20(2.8)	156(21.9)	27(3.8)	74(10.4)	9(1.3)	286(40.3)
개설유 무별	개설	28(3.9)	180(25.3)	69(9.7)	39(5.5)	15(2.1)	33(46.6)
	미개설	33(4.6)	217(30.5)	34(4.8)	82(11.5)	13(1.8)	379(53.4)
계		61(8.6)	397(55.8)	103(14.5)	121(17.0)	28(3.9)	710(100.0)

*** : $p < .001$

<한국근·현대사> 단원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이 397명(55.8%)으로 나타났다으며, “북한문제와 통일문제”가 121명(17.0%), “건국 후 민주정치 발전”이 103명(14.5%), “개항과 근대화”가 61명(8.6%), “기타”가 28명(3.9%)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의외로 일본과의 문제에 민감성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독도소유권 주장문제, 일본위안부 보상 문제 등에 근현대사 어느 부분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대응도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 관련 문제들을 현실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와 능력 배양의 몫도 근현대사 수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로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국민정

부, 참여 정부 이후 대북사업들이 언론에 대두되고 피부에 와 닿으면서 현실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된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건국 후 민주정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수업 중에 받은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과 극복, 정치 발전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학교계열별 개설유무별 <한국근·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관심분야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역사 일반에 관한 내용

<표 53> 역사관 정립의 영향 요인

구분	학교의 역사시간	주변지 인의 역사관	박물관 및 유적지 견학	역사관 관련서적	매스컴	계	χ^2
성별	남자	107(14.8)	11(1.5)	26(3.6)	52(7.2)	181(25.1)	377(52.3)
	여자	147(20.4)	12(1.7)	17(2.4)	30(4.2)	138(19.1)	344(47.7)
학교 계열별	인문계	113(15.7)	7(1.0)	8(1.1)	44(6.1)	105(14.6)	277(38.4)
	자연계	50(6.9)	8(1.1)	5(0.7)	17(2.4)	72(10.0)	152(21.1)
	실업계	91(12.6)	8(1.1)	30(4.2)	21(2.9)	142(19.7)	292(40.5)
개설 유무별	개설	127(17.6)	12(1.7)	12(1.7)	48(6.7)	138(19.1)	337(46.7)
	미개설	127(17.6)	11(1.5)	31(4.3)	34(4.7)	181(25.1)	384(53.3)
계		254(35.2)	23(3.2)	43(6.0)	82(11.4)	319(44.2)	721(100.0)

** : $p < .01$, *** : $p < .001$

학생의 역사관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스컴”은 319명(44.2%)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역사시간”이 254명(35.2%), “역사관련 서적”이 82명(11.4%), “박물관 및 유적지 견학”이 43명(6.0%)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지인의 역사관”이 23명(3.2%)

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간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매스컴의 영향이 강한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 역사 시간을 통해 역사의식과 역사관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역사관련 언론보도나 자료, 영상매체의 역할과 교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성별, 학교계열별 역사관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4>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 인식 여부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 지않다	계	χ^2
성별	남자	52(7.2)	120(16.6)	142(19.6)	44(6.1)	19(2.6)	377(52.1)	21.131***
	여자	26(3.6)	102(14.1)	170(23.5)	44(6.1)	4(0.6)	346(47.9)	
학교 계열별	인문계	30(4.1)	103(14.2)	114(15.8)	28(3.9)	3(0.4)	278(38.5)	27.118***
	자연계	20(2.8)	44(6.1)	69(9.5)	18(2.5)	1(0.1)	152(21.0)	
	실업계	28(3.9)	75(10.4)	129(17.8)	42(5.8)	19(2.6)	293(40.5)	
계		78(10.8)	222(30.7)	312(43.2)	88(12.2)	23(3.2)	723(100.0)	

*** : $p < .001$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78명(10.8%), “그렇다”가 222명(30.7%), “보통이다”가 312명(43.2%)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88명(12.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명(3.2%)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계열별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5> 중국 동북아 공정사업으로 인한 역사 왜곡 내용 인식여부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χ^2
성별	남자	49(6.8)	92(12.7)	132(18.2)	67(9.3)	37(5.1)	377(52.1)	34.299***
	여자	15(2.1)	61(8.4)	124(17.1)	111(15.3)	36(5.0)	347(47.9)	
학교 계열 별	인문계	28(3.9)	83(11.5)	97(13.4)	57(7.9)	14(1.9)	279(38.5)	47.460***
	자연계	15(2.1)	31(4.3)	62(8.6)	33(4.6)	11(1.5)	152(21.0)	
	실업계	21(2.9)	39(5.4)	97(13.4)	88(12.2)	48(6.6)	293(40.5)	
개설 유무 별	개설	30(4.1)	90(12.4)	123(17.0)	72(9.9)	25(3.5)	340(47.0)	16.533
	미개설	34(4.7)	63(8.7)	133(18.4)	106(14.6)	48(6.6)	384(53.0)	
계		64(8.8)	153(21.1)	256(35.4)	178(24.6)	73(10.1)	724(100.0)	

*** : $p < .001$

중국 동북아 공정사업으로 인한 역사 왜곡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64명(8.8%), “잘 알고 있다”가 153명(21.1%), “보통이다”가 356명(35.4%)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가 178명(24.6%), “전혀 모른다”가 73명(10.1%), 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비해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인식도가 낮다.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15.4%정도 이지만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34.7%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역사분쟁 사안에 대해 문제 인식도가 낮다.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역사관점이나 역사 논쟁에 관한 무관심은 문제가 있다. <한국근현대사>교육과 더불어 세계사의 아시아 단원의 수업으로 동북아시아 관계사와 우리의 역사적 위치를 직시할 수 있는 의식 정립이 필요하다.

성별 학교계열별 중국 동북아 공정사업으로 인한 역사내용을 알고 있는

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6>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에 대한 관심분야

구분	간도지역 문제	고구려사 문제	고조선 문제	문화재의 소속문제	계	χ^2
성별	남자	50(7.0)	250(34.9)	36(5.0)	37(5.2)	373(52.0)
	여자	45(6.3)	263(36.7)	17(2.4)	19(2.6)	344(48.0)
학교계 열별	인문계	40(5.6)	218(30.4)	8(1.1)	8(1.1)	274(38.2)
	자연계	20(2.8)	118(16.5)	8(1.1)	7(1.0)	153(21.3)
	실업계	35(4.9)	177(24.7)	37(5.2)	41(5.7)	290(40.4)
계	95(13.2)	513(71.5)	53(7.4)	56(7.8)	717(100.0)	

** : $p < .01$, *** : $p < .001$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으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사 문제”가 513명(71.5%)으로 나타났으며, “간도지역 문제”가 95명(13.2%), “문화재의 소속문제”가 56명(7.8%), “고조선 문제”가 53명(7.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생들의 동북공정 전반에 대한 인식부족인 듯하다.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뿐 아니라 고조선에서 간도문제까지 한국사 전반을 다뤘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동북공정을 단지 고구려사 왜곡 정도로 파악했다. 동북공정의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국경 문제도 중요하다. 동북공정은 원·명·청·민국 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간도 및 한중 국경 문제, 국경이론 및 민족문제들이 고구려 보다 많은 비중을 가지고 다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표 57>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제도가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

구분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계	χ^2
성별	남자	36(5.0)	144(20.0)	130(18.1)	28(3.9)	39(5.4)	377(52.4)	14.406* *
	여자	34(4.7)	138(19.2)	122(16.9)	37(5.1)	12(1.7)	343(47.6)	
계		70(9.7)	282(39.2)	252(35.0)	65(9.0)	51(7.1)	720(100.0)	

** : $p < .01$

새로 개설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도움이 된다”가 70명(9.7%), “도움이 된다”가 282명(39.2%), “보통이다”가 252명(35.0%), “도움이 안된다”가 65명(9.0%),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51명(7.1%)으로 나타났다.

성별 새로 개설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5) 문제지 해답을 통한 분석

<표 58> 학교 계열별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문제 인식도 차이

구분	인문계(a)	자연계(b)	실업계(c)	<i>F</i>	post-hoc
<한국근·현대사> 인식도	4.64±1.46	3.93±1.37	3.13±1.28	85.092***	a>b>c

*** : $p < .001$

학교 계열별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계 4.64±1.46, 자연계 3.93±1.37, 실업계 3.13±1.28로 나타났으며, 학교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사후검증 결과 인문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 실업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개설유무별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문제 인식도 차이

구분	개설	미개설	t-test
<한국근·현대사> 인식도	4.45±1.52	3.38±1.34	9.845***

*** : $p < .001$

개설 유무별에 따른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설 4.45±1.52, 미개설 3.38±1.34로 나타났으며, 개설유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6)학생 설문 결과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725명의 설문을 분석하여 남녀별, 계열별, <한국근·현대사>과목의 개설유무별로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학습과 관련된 내용과 역사일반에 관한 관심도, 그리고 근현대사 지식을 평가문제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국사> 교육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주변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해야한다는 당위성(80.6%)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근·현대사>의 교과 분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생각한다. 따라서 “<국사>에 포함하여 필수교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단지 인문계열의 일부학생들 중에서는 입시의 부담 때문에 두 과목으로 분리되어 선택·학습을 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27.9%)

둘째, 교수-학습에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도 근현대사 단원 학습은 역사가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어 역사 전공교사에게서 역사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고등학교에서도 <국사>시간에는 수업 시수의 부족과 <한국근·현대사>의 개설로 제대로 수업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사>에 대한 관심도가 실업 계열과 <한국근·현대사> 미개설교 학생의 경우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한국근·현대사> 개설교의 경우는 <한국근·현대사>에 관심도가 더 높으며, 따라서 교과외의 개설 유무가 교과에 대한 관심과 역사관 정립에 필수적인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근현대사 단원 중에서도 일본과의 문제에 민감성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소유권 주장, 일본위안부 보상 문제 등 그 대응도 매우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논리적 합리적으로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의 육성이야말로 근현대사 수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분쟁 관련 지식은 매우 빈약하여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그치고 있으며, 동북공정의 진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좀 더 구체적, 객관적으로 고찰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이 배려되어야 필요성을 절감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역사관 형성은 학교 수업시간과 매스컴의 영향(79.4%)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교과와 언론 미디어의 책임감이 상당하다.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역사 학습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수업(45.5%)을 원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방안과 자료 개발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사능력 시험에 대해 역사교육강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시나 취업의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부담감이 보태지는 측면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킨다는 명분으로 선불리 가산점 부여 같은 정책보다는 보다 더 많은 검증을 거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부산대학교의 인문계열에서의 국사 가산점 부여 문제는 서울대 <국사>과목 필수 응시과목화한 문제만큼이나 <국사>과목을 기피와 선택의 어려운 문제꺼리로 만들고 있다.

여섯째, 실제로 학생들에게 근현대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풀어 보게 한 결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실업 계열 그리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개설교과 미개설교에서의 문제 인식도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였다. 근현대사 역사 인식을 위한 실제 수업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VI. 결론 및 제언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실시된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 과정에 역사과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근·현대사>가 분리·독립되고 <세계사>와 더불어 선택과목화 되어 역사 교육의 기능 약화를 가져왔다. 최근에 일본과 중국의 한국사와 관련 역사 왜곡 문제와도 맞물려서,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교사와 학생에게서 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 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수정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제7차 역사과 교육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특징이 역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가 <국사>에서 분리되긴 했지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학생들에게 싫증을 내는 과목으로 인식을 하게 하였다. 초·중·고 학교별 단계에 맞고 학생들의 의식성장의 수준을 맞추어 다양하게 분류해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과목을 <국사>에 포함시켜 필수로 하되 <국사>라는 국수적 입장보다는 세계 각국이 지향하는 바처럼 <한국사>라는 교과명하에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시수를 안배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은 <국사>의 학습 내용이 많아지므로 수능의 사회탐구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근현대사가 강화된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되거나 10학년에 과목에 배정하면 국민공통과목으로 배정되어

인문계는 물론이고 실업·자연계열의 학생들도 근현대사의 불균형적인 수업 대신에 역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세계사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심화 선택이후 <한국근·현대사>에 비해 <세계사> 선택은 미미하다.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학교에서 세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하고 대학에서조차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국제사회에서의 세계의 역사에 대한 안목과 지식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은 세계사의 제국주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갔고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의 흐름이 우리의 역사와도 밀접한 상황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 상호 교차하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사 교육 강화도 대폭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을 위해 교사 연수와 교사단위모임의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근·현대사>가 독립되어 새로 개설·심화됨으로서 내용이 깊고 방대해지면서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교과 연구가 요구된다. 설문에서도 오늘날 교사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학문적인 연구물들을 접할 기회가 있고, 보다 나은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전보다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자료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역사 교사들 간의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에 관련한 애로점이나 수업 기법의 상호 교류가 필요하고 근현대사 수업에 참고 될 동영상 자료 제작 등 작업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학문적인 연구 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연계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반 연수를 제외하고는 대학이나 연구 단체가 제공하는 선진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학계의 새로운의 성과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단절

되어 있다. 즉 역사학회나 역사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에서는 역사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물을 많이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

또한 교육대학원 같은 교사 재교육을 목적으로 학문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분류와 더불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의 특성과 수업되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여 시대사를 적절히 안배하여 (근현대사를 포함)교육을 하면 현장 교사들의 교수 활동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본다.

셋째, 학생의 수업 형태를 혁신을 주어 현장위주의 역사교육을 하자.

학생들의 <한국근·현대사> 수업모델 요구를 보면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가 갖는 어려운 문제를 알 수 있다. 즉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역사의 연대 사전처럼 나열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인물과 사실들이다. 교사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강의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역사는 암기과목이다. 그런데 암기를 해도 요즈음의 수능의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없다. 암기해야 할 기본의 엄청난 분량, 거기에다가 이해와 분석과 추론 능력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관계로 점차 수능에서의 선호도에서 소외되어간다.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남녀, 계열별, 개설유무를 떠나서 대부분이다. 현재 고등학교 역사수업의 특성상,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역사스페셜’이 전근대사를 아우른다면, ‘한국100년사’ 같은 다큐멘터리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적지 견학 등 체험 위주의 수업도 교사가 모든 학생을 데리고 다니지 않더라도 수행평가를 통해서나 소풍 등의 체험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에서 부산 지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을 지정

해서 방학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조사하도록 한다면 근현대사의 질곡에서 있던 부산 향토사까지 함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각국의 국사 교육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계의 각국 역사교육의 경우 국사정책에 규정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이데올로기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역사교육도 자국사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단지 그 정도 내용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보편적 추세 속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이 동북공정 등 역사 전쟁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즈음에는 국가주의 국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사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 정체성 형성 및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을 위하여 보다 심도 높은 가질 수 있는 수위의 역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되어 과행적인 운영을 역사교육이 정상화하고, ‘자국사’가 아닌 세계사 교육이 강화된 ‘역사’ 교과서를 제작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역사교육, 특히 한국사 교육은 민족과 국가 중심의 교육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역사 교육은 단순히 자국사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역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 8차 교육과정³²⁾에서의 역사과는 한국근·현대사의 재통합과 ‘한국문화사’, ‘동북 아시아사’ 교과 등의 개설들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진

32) 제 8차 교육과정 시행 일정

구 분	2006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기초연구 실시 및 개정안 연구 개발	교육과정 고시 (07.02.)	-	-	초1, 2	초3, 4	초5, 6	-	-
중 학 교			-	-	-	중 1	중 2	중 3	-
고등학교			-	-	-	-	고 1	고 2	고 3

정으로 역사학회나 특히 현장 교사의 제언과 검증을 수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역사 문제 및 일본의 교과서 문제 등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국가기관에서 일회성으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역사교육강화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대입수학능력시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사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2000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정자료 83
2001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상)(하) 2000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2005,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사회》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자료》 198호 2003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근·현대사 교수·학습 자료》 2005
- 한국교육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200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정의 실제》 2005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니카무라 사토루 편저 《동아시아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2006
-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2. 논문

김한중,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현대사 수업>, 《한국 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역사 교육의 현실과 과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봄·여름 통합호》, 2001

교육인적자원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연수자료, 2002

이해영,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육의 현황>,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임지현, <한국사 학계의 ‘민족’ 이해에 비판적 검토>, 《역사 비평》 26, 1994

유용태, <거시역사와 미시분업: 분업과 협업> 《역사 비평》 58, 2002

지수길, <집중토론: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역사학·역사교육의 쟁점, 2002

한재웅,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문제점> 경희대학교 교육학석사, 2006,

지수길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준거안의 문제점 -근대(‘개항’~‘해방’)관련부분 중심으로- , 《역사 교육》 79, 2001

고영진, <포스터 모던시대의 근대 전환기 인식과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 《한국사 교과서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김한중, <미국, 영국, 일본의 역사 교육과정 동향>, 《역사교육》 71,

주철민, <프랑스 고등학교 현대사교육의 내용구성과 조직>,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2005

정재정, <일본 역사교육의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실》 8, 1992

김주택, <초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실태와 그 요인>,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2005

이지연, <역사과 심화 선택과목‘<한국근·현대사>’의 체제와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허신혜, <중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근현대 인식>, 《선인》, 2005,

신병철, <왜 중고교에서는 현대사 교육은 외면하나>, 역사가 10인에게 듣는다.

<국정 국사 교과서 개발 과정과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역사교육79》, 2001.

안병우, <역사교육 정상화‘교과’의 독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역사교육 정상화 대책위원회 자료, 《역사교육 94》, 2005,

김성은 <7차 교육과정 역사교과 편성에 관한 현장 조사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03

양정현 <7차 교육과정과 역사 교육의 진로>, 교육마당 21, 2004

<교과서 구성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규정성>, 《역사교육연구》, 제2호

성기현< 『한국근·현대사』 선택과목의 교수·학습 실태와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송상현 <근현대사 선택과목화의 문제> 《오늘의 청소년》, 2005

정용택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 실태와 수업개선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지수걸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준거안 문제점> 《역사교육 79》, 2001

조동선 <대학에서 근현대교육 배제 문제> 특별기획: 역사가 10인에게 듣

는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서중석 <현행 중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부문 분석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79》, 2001

왕현중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역사비평 2000 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류승렬 <중등학교 역사교육의 실체와 개선방향> 《역사와 현실 6권》 한국사연구회 1991

이명희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82》

김한중 <학교 역사교육 실태의 왜곡 -안병영 장관 서한 내용의 문제점>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 《역사교육 79》, 2001

이명희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교육학 연구 40》, 2001

<부록>

설문지 <교사용>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부산지역의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계신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응답하신 선생님의 고견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만 사용될 것 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마일영

※ 설문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1.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현재 어떤 계열입니까?

-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특수목적고 ④ 기타

2.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 -20년 ④ 20년 이상

3.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에 V를 해주시고 기타일 경우는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한국근현대사>가 귀교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선택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 ①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학생 선택과목으로 ② 학교 지정 선택과목으로 ③ 시교육청 지정 선택과목으로

1-2. ①에 해당한다면 연간 단위 수는 얼마입니까?

- ① 4단위 ② 6단위 ③ 8단위 ④ 10단위 이상

1-3. ①에 해당한다면 몇 학년에서 수업을 하십니까?

① 2학년 전체 ② 2학년 인문계열 ③ 3학년 전체 ④ 3학년 인문계열

2. 10학년 <국사>의 근현대사 단원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0학년 국사 수업단위가 연간 4단위 외에도 학교 재량으로 시수를 더 배정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교는 국사 수업시수가 보장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학교에서 심화 선택과목 선정 시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학생들의 선호도 ② 교원의 수업문제 ③ 수능 준비와 관련
④ 학교 특성화 성격과 연관 ⑤ 기타()

5. 7차 교육과정에 필수<국사>에서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독립과 선택과목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근현대사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
- ② 선택 과목이 되어 역사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국사 수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④ 국사에 포함하여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
- ⑤ 국사에 포함하여 심화 선택과목화 하여야한다.

6. 선생님께서는 한국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② 별로 받은 적이 없다 ③ 전혀 받은 적이 없다

7. 한국근현대사교육이 동북아 역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고등학교 수업을 통하지 않고 한국근현대사 부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 교육과정 ② 영상·언론 매체 ③ 주변 지인들
- ④ 드라마 ⑤ 역사서적

9.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보통이다
- ④별로 필요 없다 ⑤전혀 필요없다

10. 2009년도부터 중학교 사회에 속했던 역사수업(국사, 세계사부분)이 독립교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역사교육 강화정책으로 환영 한다.
- ② 내용만 방대해 질 우려가 있다.
- ③ 전공교사 확보가 우려 된다.

- ④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 ⑤ 고등학교 역사교육과 차별화가 어렵다.

11. 서울대는 인문계열 일 경우 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하였고, 부산대는 2008년부터 국사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부산지역 고교 수험생의 국사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1 문항에서 ①②선택했을 경우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의 위상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 ① 매우 약화될 것이다 ② 약화될 것이다 ③ 변화가 없다
- ④ 국사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⑤ 매우 강화될 것이다

12.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경향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들어 본 적 있다
- ④ 모르겠다 ⑤ 처음 들어본다

13. 포스터 모더니즘 역사학에서는 ‘탈민족’ ‘탈국가’를 주장하며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를 쓰고, 역사를 공유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 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4. 2006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역사 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 학생들의 역사의식 정립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사회에 진출 후

16. 한국근현대사를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 ① 역사 용어의 어려움 ② 사전지식이 없는 생소함
③ 역사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 ④ 너무 정치사 위주의 건조함
⑤ 기타()

17. 한국근현대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재연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인터넷 웹 자료의 활용 ② 기존의 참고서 활용
③ 출판사의 지도용 지침서 활용 ④ TV 등 역사 다매체 활용 ⑤ 기타

18. 한국근현대사의 효율적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재교육 차원에서 연수를 강화
②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배부
③ 역사 교사모임의 활성화
④ 역사과 과목의 위상을 강화
⑤ 국사처럼 필수 과목으로 채택

19. 귀교의 학생들은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 이상

20. 학생들이 사회탐구 선택에서 <한국근현대사> 제외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념이 어렵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② 상위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므로 표준점수가 낮기 때문에
③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④ 암기위주의 과목이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⑤ 기타()

21. 수능에서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인문이나 자연계열)들의 수업태도 및 참여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높은편이다 ② 높은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편이다

설 문 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학습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정답이 없으며, 이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에 V를 해주시고 기타일 경우는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계열은 어떤 계열입니까?

① 인문계 ② 자연계 ③ 실업계(공고계열, 상고계열) ④ 특수목적고

3. 학생의 학교에서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되어 수업을 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학생의 역사관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의 역사시간 ② 주변지인의 역사관 ③ 박물관 및 유적지견학
④ 역사 관련 서적 ⑤ 매스컴(TV, 라디오, 역사드라마)

5. 중학교 사회시간에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수업을 받은 적 있습니까?

① 충분히 받았다 ② 대강 받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받지 않았다 ⑤ 전혀 받지 않았다

6.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국사 수업 시에 근현대사 부분의 수업을 받은

적 있습니까?

- ① 충분히 받았다. ② 대강 받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받지 않았다 ⑤ 전혀 받지 않았다

7. 한국근현대사와 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는 어떠합니까?

- ① 둘 다 매우 관심이 높다 ② 국사에 더 관심이 있다
③ 근현대사에 더 관심이 높다 ④ 둘 다 별로 없다
⑤ 둘 다 전혀 관심이 없다.

8.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찬성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8번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 ① 우리민족의 역사이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②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③ 교양과 상식에 필요하므로 ④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므로
⑤ 기타 ()

10. 국사에서 독립되어 선택 심화과목이 된 한국근현대사 과목에 대한 생각은? (복수 응답 가능)

- ① 선택과목이 되어 국사 수업의 부담이 줄었다.
② 선택과목을 유지하되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반영을 권장 한다.
③ 국사 안에 다 포함 되어 필수로 배워야한다.
④ 독립과목으로 둘 다 필수로 배워야한다.
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11. 한국근현대사가 선택되지 않은 (자연계열, 실업계열) 학생들은 역사인식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① 강의식 ② 모듈수업 ③ 토론 수업 ④ 영상매체 활용
⑤ 유적지 견학 등 체험 위주

① 윤리 ② 국사 ③ 한국근현대사 ④ 세계사 ⑤ 한국지리 ⑥ 세계지리
⑦ 경제지리 ⑧ 경제 ⑨ 사회문화 ⑩ 법과 사회 ⑪ 정치

① 학교에서 지정하여 ② 개인적 선호하는 과목이라서 ③ 점수가 잘 나와서
④ 국사와 연계하여 학습하기 좋으니 ⑤ 기타()

17-2(인문계열만 응답) 한국근현대사를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다면 그 이유는?

- ① 개인적 관심이 없어서 ② 점수가 안 나와서 ③ 수업의 이해가 어려워
- ④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 ⑤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을 안해서

18.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국사나 근현대사 과목에 가산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모르겠다
-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9. 한국근현대사 수업이 역사관 형성과 민족의식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 한국근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 ① 개항과 근대화 ②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③ 건국 후 민주정치발전
- ④ 북한문제와 통일 문제 ⑤ 기타()

21. 새로 개설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역사 교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22. 우리지역 대학인 부산대학에서 2008년도부터 인문계열 응시자 중 국사 과목 선택 시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사회탐구 과목 선택 시 변화가 있겠습니까?

- ① 국사를 선택 한다 ②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같이 선택한다
- ③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한다 ④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 한국근현대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 다음에서 명성황후와 관련이 깊은 사항은?

- ① 서원의 철폐 ② 병인양요 ③ 척화비 건립 ④ 을미사변

2. 청이 우리나라에 세력을 뻗혀 내정간섭이 강화되게 한 사건은?

- ① 갑신정변 ② 동학농민 운동 ③ 아관파천 ④ 갑오개혁

3. 전봉준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은 후 다시 재봉기한 배경은?

- ① 고부 군수의 탐학에 항거 ② 우금치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③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④ 최제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4. 일본의 국권 침탈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한일 의정서 ② 을사조약 ③ 한일 병합조약 ④ 한일 협정

5.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으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① 간도지역 문제 ② 고구려사 문제 ③ 고조선 문제 ④ 문화재의 소속 문제

6.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일부 사실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 한다 ② 침략을 정당화하는 주장이다
③ 현재에 와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④ 많은 부분 사실이다

7.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기념식장을 폭파한 의거를 일으킨 독립 투사는?

- ① 안중근 ② 윤봉길 ③ 김원봉 ④ 김구

8. 다음 현대사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할 때 ㉠ 들어갈 사건은?

모스크바 3상회의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 2차 미소공동위원회 →
(㉠)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② 제주도 4.3사건
③ 여수·순천 반란사건 ④ 6.25전쟁

9.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 일으킨 사건은?

- ① 4.19 혁명 ② 5.16 군사 쿠데타 ③ 5.18 민주화 운동
④ 6월 민주항쟁

10.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미군정 실시 ② 이승만 정권의 소극적 성향 ③ 6.25 전쟁 ④ 반공 정책

----- 감사합니다 -----

